

張介賓의 <求正錄>에 관한 研究

朴赫圭, 孟雄在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the Qiu Zheng Lu (求正錄) of Zhang Jie Bin (張介賓)

By: Park Hyuk-Kyu, Maeng Woong Jea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 Kwang University

Directed By: Maeng Woong-Jae, Ph.D.

This thesis study of the medical concept Qiu Zheng Lu (求正錄) is discussed in the Lei Jing Fu Yi (類經附翼), a book authored by Zhang Jie Bin (張介賓) a medical doctor during the Chinese Ming (明) dynasty (1368-1683).

The meaning of Qiu Zheng Lu (求正錄) is "searching for the rightness." In his book Zhang Jie Bin (張介賓) intended to clarify Qiu Zheng Lu (求正錄) by delineating the concept into four categories. These are: Sanjiao Baoluo Mingmen Bian (三焦包絡命門辨) the theory of the triple warmer, the Pericardium, the Gate of Life; Da Bao Lun (大寶論) the theory of the great treasure of the human body; Zhen Yin Lun (真陰論) the theory of true-yin fluid; and Shi Er Zang Mai Hou Bu Wei Lun (十二臟脈候部位論) the theory of the part of the pulse and its condition in regards to the twelve viscera.

Sanjiao Baoluo Mingmen Bian (三焦包絡命門辨), the theory of the triple warmer, the Pericardium, the Gate of Life. The triple warmer (三焦: Sanjiao)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upper, middle, and lower. This concept is also connected with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vital organs. The upper burner is related to the heart and lungs. The middle burner is related to the liver and spleen. Whereas, the lower burner is related to the kidneys. Bao-Luo (包絡) is the Pericardium, the envelope of the heart, serving as the protector of the heart. Ming-Men (命門) is the Gate of Life, referring to the vitals of life. It functions as kidney-yang which is considered as the

origin of yang-energy of the human body, and serves partly as the function of cortico-adrenal gland in modern medicine.

Zhang Jie Bin (張介賓) discussed the Da Bao Lun (大寶論) a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in the human body because the Da Bao (大寶/great treasure) is the true-yang (眞陽) which is the affective force for physiological functions, and as the source of energy for life activities. Moreover, true-yang (眞陽) functions both as a heater and thermometer that warms the human body and indicates vitality by levels of body warmth respectively.

The Zhen Yin Lun (眞陰論) theory states that if true-yang (眞陽) is energy, then true-yin (眞陰) is the source of energy. This can be likened to a tree with roots which absorbs nutrients from the ground (source), and spreads the nutrients (energy) through its branches. Thus, true-yin (眞陰) is the root cause for later functional activities of true-yang (眞陽).

In Shi Er Zang Mai Hou Bu Wei Lun (十二臟脈候部位論) the theory of the pulse (脈/Mai) and its condition in regards to the twelve viscera, Zhang Jie Bin (張介賓) insisted that when a diagnosis by the pulse is made the five vital organs and the six viscera (五臟六腑) of a human body should be harmoniously arranged in accordance with its respective part of the pulse.

Furthermore, Zhang Jie Bin (張介賓) supported his theory with evidence from earlier Chinese medical doctors. And, by stating that human beings must cultivate and preserve their true-yin (眞陰) and true-yang (眞陽) energies he therefore created four new prescriptions called: Zuoguiyin (左歸飲), Youguiyin (右歸飲), Zuoguiwan (左歸丸), Youguiwan (右歸丸).

To further clarify his theory Zhang Jie Bin (張介賓) considered that the function of true-yang (眞陽) and true-yin (眞陰) is expressed by Ming-Men (命門). This theory is that for humans to be spiritually and physically healthy they must live in accord with natural law. Also,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 law, astronomical and geographical factors must be considered for complete, holistic, health. Thus, Ming-Men is the basis for healthy living in the modern world.

I. 緒 論

한의학은 《黃帝內經》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漢代 張機의 《傷寒雜病論》에서 임상적 기초가 형성되었고, 南北朝시대와 隋, 唐, 宋代를 거치면서 內經 연구가들에 의한 《黃帝內經》의 다양한 연구와 여러 의가들에 의한 傷寒 理論의 연구와 침구, 본초, 방제, 소아과, 부인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전문 醫書의 출현으로 임상 의술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한의학의 이론들이 점차 체계를 잡아나갔다. 金·元代에 와서는 劉完素, 張從正, 李杲, 朱震亨의 이른바 金元四大家와 여러 의가들이 醫學理論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여 의학 유파에 의한 各家學說이 발달하게 되었다.

한의학이 다양한 이론과 많은 임상경험의 결합에 의해 완전히 開花하고 結實을 맺게 된 것은 金·元代 이후 明·清代에 이르러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薛己, 趙獻可, 孫一奎, 張介賓, 李中梓 등을 중심으로 한 溫補派가 明代 醫學의 주류를 이루면서 金元四大家의 학설에 대한 비판과 命門, 三焦 등에 관한 열띤 논쟁을 통하여 한의학의 이론을 더욱 다양하게 체계화해 갔다고 할 수 있다.

金元代이후 明代까지의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醫家들이 河間, 丹溪의 학설을 계승하고 각기 한 학설을 고집하여 융통성 없이 처방을 구성하였는데 흔히 寒涼한 藥으로 攻伐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폐해가 늘어났다. 張介賓의 學說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 의거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폐해를 없애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나온 것이다. 張介賓의 學說은 많은 임상 경험에 바탕을 두고 《內經》과 《難經》을 계승하고 唐, 宋, 金元 및 明代醫家들의 學術思想을 취하였으며 劉河間과 朱丹溪의 學說에 대해서도 비평을 한 뒤 取捨選擇하였다.

張介賓(1562~1639年)의 字는 會卿, 號는 景岳이고, 別號는 通一子이며 明代末 會稽(지금의 浙江城 紹興)人이다. 景岳은 어린 시절에 총명하여 諸子百家에 대하여 널리 연구하였으며 역리, 천문, 병법에 능통하였고 더욱이 醫術에 정통하였다. 젊은 시절에 金英에게서 醫學을 배우고 壯年에는 군대를 따라 북방을 유랑하였으며 고향에 돌아온 후에는 醫學에 전념하여 장기간 임상에 종사하며 여러 권의 醫書를 저술하였다. 景岳은 《內經》을 30여 년간 정밀히 연구하여 《素問》과 《靈樞》를 합쳐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類經》 32卷을 완성하였으며 《類經圖翼》, 《類經附翼》도 함께 편찬하였다. 그는 또한 先人과 자신의 일생동안의 경험들과 못 說들을 두루 채취하여 《景岳全書》를 편집하였는데 이 책은 64권으로 구성되었으며 內科, 婦人科, 小兒科, 外科 등 각 과별로 나눈 방대한 醫學著書이다. 또한 말년에는 《質疑錄》을 저술하였다¹⁾.

景岳은 《類經附翼》중에 <求正錄>을 두어 그 바름(正)을 求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는 <三焦包絡命門辨> <大寶論> <眞陰論> <十二藏脈候部位論>의 4편의 論說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醫論을 주장하였으며, <求正錄>을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命門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命門을 왜 다시 살펴야하는 가는, 생명체의 가장 보배롭고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곳이며, 이 命門 기능의 成敗에 따라 種의 種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생명존속과 종족보존의 열쇠가 이곳에 달려 있고, 삶과 죽음을 돌이 아닌 하나의 生死一如한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자 했던 옛 先人들의 철학이 바로 이곳에 담겨있어 人間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醫學속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命門에 관한 것이 가장 人本主義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생명현상의 공통된 징후가 있다. 생명체는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활용하고 성장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을 쉽

1) 裘沛然：中醫歷代各家學說，上海科學技術出版社，pp.185~186, 1984.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생명현상의 발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火候, 즉 溫氣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溫氣는 생명체의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이며, 이 힘은 命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생명체는 命門을 통하여 溫氣를 쉬지 않고 타오르게 해주어 氣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이러한 生의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種의 연속성을 보존한다.

인체의 생명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五臟六腑와 經絡의 개념이외에도 다양한 개념이 필요하다. 景岳은 <求正錄>을 통하여 三焦, 包絡, 命門의 기능을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의 根源이 되는 것과 그 생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탈 없이 온전하게 보존하여 건강한 生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오늘날 환경의 오염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자수의 감소와 수정 능력의 저하에 따른 생식능력의 감소로 인해 외부환경과 인간개체의 문제에 의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현상은 소비 지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의 性에 있어서도 性을 상업적인 가치와 소비적인 대상으로 보고 소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人身의 眞陰과 眞陽을 소모시키는 사회적인 구조로 변질되면서 性에 있어서 인류의 미래지향적, 생산적, 창조적 가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命門의 기능은 眞陰과 眞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르고 보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命門을 왜 다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景岳의 命門學說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求正錄>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三焦包絡命門辨

景岳은 <三焦包絡命門辨>을 통하여 諸家들의 文獻과 易의 內容, 天地自然의 법칙 등을 인용하여 三焦·包絡·命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三焦·包絡·命門을 모두 有形하다고 보았다. 有形하다고 하는 인식의 바탕으로는 <三焦包絡命門辨>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景岳은 “모든 論은 반드시 이치가 있어서 생겼고 모든 名은 반드시 형상이 있어서 생겼다”¹⁾고 하는데 인식의 바탕을 두었다.

¹⁾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三焦包絡命門辨, p.267
凡其所論 必因理而發 凡其命名 必因形而生

사람들이 有狀인가 無形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 이름이 있는데 그 形狀이 없겠는가라는 실증적인 사고를 가지고 《內經》에 있는 것은 “글자 하나, 문구 하나라도 구차하고 헛된 말이 없다”²⁾라고 하여 글자 하나, 문구 하나라도 헛되이 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三焦·包絡·命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形狀에 따라 붙여지는 것이므로 만약 이와 같이 이름만 있고 形狀이 없다고 한다면 《內經》의 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되고 만다”³⁾고하여 이름에는 반드시 形體가 있는 것이라는 데에 인식의 바탕을 두었다.

(1) 三焦

1) 《內經》의 文獻 考證

景岳은 三焦가 有形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靈樞》의 <本輸篇> <本藏篇> <論勇篇> <決氣篇> <營衛生會篇> 등의 각 篇과 《素問》의 <五藏別論> <六節藏象論>의 각 篇을 두루 고찰하여 三焦의 形狀과 人體內에서의 기능과 작용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內經》에서 인용한 내용을 보면

<本輸篇> “三焦者 中瀆之府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本藏篇> “密理厚皮者 三焦膀胱厚 麤理薄皮者 三焦膀胱薄 以及緩急直結六者 各有所分” <論勇篇> “勇士者 目深以固 長衡直揚 三焦理橫 怯士者 目大而不減 陰陽相失 其焦理縱” <決氣篇>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漑 是謂氣 中焦受氣取汁 變化以赤 是謂血” <營衛生會篇> “營出於中焦 衛出於下焦” “上焦出於胃上口 并咽以上 貫膈而布胸中 中焦亦并胃中 出上焦之後 泌糟粕 蒸津液 化精微而爲血 以奉生身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 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 而滲入焉 水穀者 居於胃中 成糟粕 下大腸而成下焦”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五藏別論> “夫胃大腸小腸三焦膀胱 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故瀉而不藏” <六節藏象論>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등과 같다.

《內經》에서의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 三焦를 無形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水道가 나올 수 있겠으며, 어떻게 厚薄·緩急·直結의 區分이 생기며, 어떻게 그 무늬가 縱이니 橫이니 하겠으며, 어떻게 霧같고 漚같고 瀆같다 하겠으며, 氣니 血이니 하는 구별이 있겠는가⁴⁾라고 하여 三焦가 無形일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2)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67, 字無苟言 句無空發

3)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68, 夫名從形立 若果有名無形 則內經之言 爲鑿空矣

4)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68, 夫既曰無形矣 何以有水道之出 又何以有厚薄緩急直結之分 又何以有曰縱曰橫之理 又何以如霧如漚如瀆 及謂氣謂血之別

2) 三焦에 대한 認識

① 字義

三焦를 字義로써 의미를 구한다면 三焦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여 “三은 天地人 三才를 상징하고 最上에서 最下까지를 總稱하는 말이다. 焦라고 하는 것은 火類를 象徵하고 赤色으로 陽에 속한다”⁵⁾고 하였다.

② 形狀과 機能

三焦에 대하여 “사람의 一身에 있어 밖으로는 皮毛로부터 안으로 藏府에 이르기까지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이름이 없는 것은 없으니 腹腔周圍의 上下全體를 두르고 있는 大囊(큰 주머니)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또 그 안쪽에 한 층으로 붙어있고 形과 色이 아주 붉어서 象이 六合과 같으며 諸陽을 모두 호위하는 것, 이것이 三焦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⁶⁾라고 하여 사람의 모든 부분에는 크나 작으나 이름이 붙어 있으며, 皮膚와 臟腑 사이사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두르고 있는 體腔 전체를 三焦라고 하였다.

<五癰津液別論>의 “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라고 한 것에서 肌肉之內와 臟腑之外를 가리켜 三焦라 하였고, <背俞篇>에서 “肺俞在三焦之間 心俞在五焦之間”이라 하는 俞穴이 焦間에 있다는 것의 설명은 軀體로서의 ‘焦’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焦’字는 원래 ‘焦(삼초 초)’字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혼용되어 쓰이다가 나중에는 ‘焦’字만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質疑錄>의 三焦說

景岳이 <三焦包絡命門辨>에서 말하고 있는 三焦에 대한 생각은 晩年の 著作이라고 여겨지는 <質疑錄>에 와서는 三焦에 대한 생각이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質疑錄>은 문자 그대로 “평소에 의문이 드는 바에 대하여 질문하다”, 또는 “의문이 있는 것을 바로 잡다”의 뜻으로서 晩年の 醫學思想을 볼 수 있는 저작이다.⁷⁾

景岳은 <質疑錄>에서 <論三焦有幾>라는 글을 실어 三焦에는 3가지 三焦가 있다고 하고 자신의 醫論을 주장하였다.

<論三焦有幾>의 서두에서 “三焦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새로운 端初를 열어 窮究 하였지만 정설을 만들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經文과 前賢의 이론을 종합하여 상세히 살펴보니 三焦에는 세 가지 종류의 三焦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⁸⁾고 하여 <三焦包絡命

5)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69, 夫所謂三者 象三才也 際上極下之謂也. 所謂焦者 象火類也 色赤屬陽之謂也.

6)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69, 人之一身 外自皮毛 內至藏府 無巨無名 無細無目 其於腔腹周圍上下全體 狀若大囊者 果何物耶. 且其著內一層 形色最赤 象如六合 總護諸陽 是非三焦而何

7) 金俊錫: 質疑錄에 나타난 張景岳의 醫學思想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제13권 1호, 1999

門辨> 이후에도 三焦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음을 볼 수 있다.

① 經으로서의 三焦

《靈樞》와 《素問》에서論한 三焦는 《難經》에서論한 三焦와 본래부터 다른 것이며, 《靈樞》 <本輸篇>에서 “三焦는 手少陽과 上合하고 關衝 즉 넷째손가락 끝에서 나온다. 三焦의 下輸는 足大趾의 前, 少陽의 後에 있으며, 臆中外廉으로 나오는데 足太陽이 手少陽과 絡한다”고 한 것은 手少陽三焦經脈이 순행하는 것을 논한 것⁹⁾이라고 하였다.

② 腑로서의 三焦

《靈樞》 <營衛生會篇>에서의 “臍下膀胱에서 足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足三焦이다. 下焦는 回腸을 別絡하여 膀胱으로 滲入한다”고 하는 足太陽膀胱은 六腑의 하나인 三焦가 소속된 것이며, 手三焦之經은 少陽이 되고 上部를 주관하고 足三焦之腑는 膀胱이 되면서 下部를 주관하니 이것은 별개의 두 가지 종류의 三焦에 해당한다¹⁰⁾고 하였다.

그리고 《靈樞》 <本藏篇>에서 “密理厚皮者 三焦膀胱厚, 麤理薄皮者 三焦膀胱薄”이라 한 것과, 《靈樞》 <論勇篇>에서 “勇士 三焦理橫 怯士 三焦理縱”이라 한 것과, 《素問》 <五臟別論>에서 “膽胃大小腸三焦膀胱 五者 爲天氣之所主”라고 한 것은 三焦·膀胱과 膽·胃·大腸·小腸의 四腑를 함께 말하면서 厚薄, 結直, 縱橫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한 三焦는 腑에 속하는 것으로 바로 ‘有形有狀’의 三焦에 대해 말한 것이다¹¹⁾고 하였다.

즉 三焦는 下部에서 膀胱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수액대사의 통로역할을 하는 腑이며 이것은 有形이라고 하였다.

③ 氣로서의 三焦

《靈樞》 <營衛生會篇>에서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이라고 한 것은 三焦가 ‘一氣’로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難經》 31難에서 “上焦는 胃의 上口에 있으며,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배출하지 않으며 主治하는 곳은 臆中에 있고, 中焦는 胃의 中脘에 있으며, 水穀의 腐熟을 주관하며 主治하는 곳은 臍傍에 있으며, 下焦는 臍下에 있고, 清濁의 分別을 주관하며 배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三焦는 바로

8) 張介賓: 張景岳醫學全書, 明清名醫全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복경, 1999. 質疑錄. p.1851.

三焦有幾, 啓其端而究未能定其說 是以總會經文與諸賢之論而詳之. 以知三焦有三三焦.

9) 앞의 책, 論三焦有幾, p.1852, 靈素之論三焦 與難經之論三焦 已自不同矣. 靈樞曰 三焦者 上合手少陽 出關衝 少指次指之端 三焦下輸 在足大指之前 少陽之後 出臆中外廉 足太陽以絡於手少陽 此論手少陽三焦經脈之所行也

10) 앞의 책, 論三焦有幾, p.1852, 又曰臍下膀胱至足 爲足三焦 下焦別回腸 注膀胱以滲入 此論足太陽膀胱 爲三焦一腑之所屬也. 手三焦之經爲少陽 主於上 足三焦之腑爲膀胱 主於下 是二三焦也

11) 앞의 책, 論三焦有幾, p.1852, 故本藏篇曰 密理厚皮者 三焦膀胱厚, 麤理薄皮者 三焦膀胱薄 論勇曰 勇士 三焦理橫 怯士 三焦理縱 而素問五臟別論 又曰 膽胃大小腸三焦膀胱 五者 爲天氣之所主. 夫三焦膀胱 與膽胃大小腸 四腑并言 而又厚朴 結直縱橫之意 此所謂三焦者 屬之於腑 正有形有狀之三焦也

‘如霧 如瀉 如瀆’의 三焦와 같은 뜻이다¹²⁾고 하였다.

그러므로 《難經》에서 이를 발전시켜 “三焦者水穀之道路 氣之所以終始”라고 하였고 “三焦者 原氣之別使 原氣在兩腎中間之動氣 爲人之生命 十二經之根本 主通行三氣(宗氣,營氣,衛氣) 經歷於五臟六腑”라고 하였다. 이러한 三焦는 氣에 속하는데 王叔和가 말한 “有名無狀”의 三焦를 말한다¹³⁾고 하였다.

④ 세 가지 三焦

이를 종합해보면 三焦는 첫째, 經으로 論하면 手少陽三焦로서 인체의 上部를 주관하고, 둘째, 腑로 論하면 足太陽三焦로서 인체의 下部를 주관하고, 셋째, 氣로 論하면 兩腎原氣의 三焦로서 인체의 內部를 운행한다.

《靈樞》 《素問》에서 論한 三焦는 《難經》에서 論한 三焦와 각기 다르며 《靈樞》와 《素問》에서 論한 手少陽三焦와 足太陽三焦는 有形의 腑이며, 《難經》에서 論한 上中下의 三焦는 無形의 原氣이다. 有形의 腑는 膽, 胃, 大小腸과 상대가 되고, 無形의 氣는 五臟六腑의 가운데를 운행하며 分肉을 따듯이 하고 皮膚를 충실히 하는 兩腎間의 原氣로서 인체의 下部에서 中部로, 中部에서 上部로 운행하며, 東垣이 “이름은 있으나 형상은 없으면서 諸氣를 주관하고 조절하며, 신체를 따뜻하게 하고 皮膚를 충실히 하며 모발을 윤택하게 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無形의 三焦이다¹⁴⁾고 하였다.

즉, 《內經》과 《難經》에서 論한 三焦는 다른 것이며, 三焦에는 有形으로 보는 三焦가 있고 無形으로 보는 三焦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質疑錄》의 내용을 보면 景岳은 金元四大家를 비롯한 前代 醫家의 이론을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존이론에 대해서도 批判과 修正을 가하였으며 미진한 내용에는 끊임없이 보완과 보충을 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4) 三焦의 字義¹⁶⁾

어떠한 대상이 이름 지워진 데에는 반드시 그 연유가 있을 것이므로 《說文解字》에

12) 앞의 책, 論三焦有幾, p.1852, 若靈樞又曰 上焦如霧 中焦如瀉 下焦如瀆 此三焦爲一氣之所主 故難經三十一難因之曰 上焦在胃上口 主內而不出 其治在膻中 中焦在胃中脘 主腐熟水穀 其治在膈傍. 下焦在臍下 主分別清濁 出而不內 此三焦者 卽靈樞所謂 如霧 如瀉 如瀆之三焦也

13) 앞의 책, 論三焦有幾, p.1852, 故難經又繼言之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以終始 三焦者 原氣之別使 原氣在兩腎中間之動氣 爲人之生命 十二經之根本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腑 此所謂三焦者 屬之於氣 正王叔和 所謂有名無狀之三焦也.

14) 앞의 책, 論三焦有幾, p.1852, 論其經則 手少陽主之於上 論其腑則 足太陽三焦 主之於下 論其氣則 兩腎原氣之三焦以行於中 故曰靈素之論三焦 與難經之論三焦 名各不同也 靈素之論 手少陽三焦與足太陽三焦 是有形之腑也 難經之論上中下之三焦 是無形之原氣也. 有形之腑 與膽胃大小腸爲配 無形之氣 遊行於五臟六腑之中 溫分肉而充皮膚 是卽腎間之原氣 自下而中 自中而上 東垣所謂 有名無狀 主持諸氣 統領周身之氣 熏膚充澤毛者也

15) 金俊錫: 質疑錄에 나타난 張景岳의 醫學思想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제13권 1호, 1999

16) 朴赫圭: 張景岳의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1996

서 三焦의 字素를 살펴 三焦라고 命名된 字義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① 三 : 《說文解字》에서 ‘三’¹⁷⁾은 數의 이름이고, 天地人의 道라고 하였다. 天과 地의 사이에 人間이 서 있는 모습의 형상으로써 天地自然과 調和로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합하여 三의 글자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宇宙森羅萬象을 이루는 세 가지 재료, 즉 天地人 三才의 개념이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三’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의 불안정한 상태의 개념 속에 중간이라는 위치를 삽입하여 위부터 아래까지 두루두루 빠짐이 없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상태의 의미를 갖게 된다.

② 焦 : ‘焦’¹⁸⁾字的 원래의 뜻은 불에 그슬리다, 타다의 의미이다. ‘焦’字는 불이 타는 것과 관련되어 赤色, 火候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醫家들은 여기에 象形文字의 의미를 함께 보았다고 할 수 있다.

景岳은 ‘膻’字를 가지고 三焦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膻’字의 사전적 의미는 三焦를 통틀어 ‘膻’라 하며, 이 ‘膻’字는 인체를 옆면에서 보았을 때 焦의 앞 肉(月) 부수는 사람의 몸동아리를 형상하며 焦는 인체의 골격을 形象하는 것으로 척추뼈를 기둥으로 體腔을 싸고 있는 골격구조를 형상하는 것으로 보았고, 膻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火의 의미로 보아 이 ‘膻’字는 人體 전체를 나타내는 象形文字의 개념으로 보았다.

③ 三焦

‘三’과 ‘焦(膻)’를 합하여 ‘三焦’라 하는데, 三焦의 기능은 決瀆之官으로 水道出焉하며, 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皮膚를 충실하게 하며,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이라 하였으며, 肌肉之內 臟腑之外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類經圖翼》의 글을 보면 “《中藏經》에 이르기 三焦는 사람의 三元之氣로 五藏 內外 上



<그림 1> 《類經附翼》의 三焦圖

17) 殷玉裁: 說文解字注, 서울, 大成文化社, 1990. p.9

三: 數名, 天地人之道也. (數者 易數也, 三兼陰陽之數言 一下曰 道立於一 二下曰地之數 三下曰 三者 天地人也. 老子曰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此釋三之義 下釋三之形 故以於文二字別言之) 於文 一耦二爲三 成數也.

18) 앞의 책, p.484. 焦: 火所傷也 從火隸聲.(焦의 本字는 隸字 밑에 火字가 있음)

下의 氣를 모두 다스리며 三焦가 통하면 모두 通하고 신체를 두루 돌면서 內外를 調和시키고 左右를 營養하며 上下를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¹⁹⁾라 하였다. 그리고 景岳은 焦는 火類를 상징하며 색이 붉은 것을 이른다고 하여 體腔 주위를 두르고 있는 큰 주머니와 같은 붉은 것이 三焦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三焦는 이름은 있지만 그 형상이 없다하여 無形之府라 하지만, 여기서의 無形之府라 한 것은 形이 없는 府가 아니라 形이라 지칭할 수 없는 府를 말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人體의 水液代謝는 五臟六腑를 돌며 血管이나 腸導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이것 외에 또 우리 몸의 물길이 있는 것을 옛 사람이 보았던 것이다. 五臟과 五腑외에 또 하나의 府로써 臟腑와 肌肉의 사이에 있으며, 肌肉을 따듯이 하고 皮膚를 충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머리위부터 발끝까지 몸동아리를 두루 감싸고 있는 體腔이 三焦라고 생각된다.

(2) 包絡

1) 心包는 心の 邪氣를 대신하여 받는 裹心之膜이다

景岳은 心包絡에 대하여 <靈樞><邪客篇>의 “心者五藏六府之大主 其藏堅固 邪不能容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이라 한 것을 들어 邪氣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써 心包를 有形하다고 보았다.

心包의 無形에 대하여는 “心主(包絡)를 또한 無形이라고 해버리면 心臟을 대신해서 邪氣를 받는 곳이 心包絡인데, 心包絡이 無形하다면 어디로 邪氣를 받겠는가?”²⁰⁾라고 하여 邪氣를 대신 받는 有形한 곳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心包의 실체에 대하여 心包絡은 文字로나 意義로 알 수 있다고 하면서 “古今의 諸賢들이 裹心之膜이라 하는 데는 의심이 절대 없다”²¹⁾고 하여 心을 싸고 있는 膜(裹心之膜)이라고 하였다.

2) 三焦·包絡의 表裏

三焦와 包絡의 表裏에 대하여는 君王의 궁궐과 이를 둘러싸는 성곽에 비유하여 “三焦는 臟腑를 밖에서 護衛하고 心包絡은 君主를 護衛하고 있으므로 마치 帝王이 있는 宮闕에 성곽이 또 있는 것과 같아 모두 陽에 속하고 모두 相火라고 하며 그 脈絡은 본래 相通하

19) 張介賓: 類經圖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類經圖翼 3卷, 經絡, p.81

中藏經曰 三焦者 人之三元之氣也, 總令五藏六府榮衛經絡 內外左右上下之氣 三焦通則內外左右上下皆通 其於周身灌體 和內調外 榮左養右導上宣下 莫大於此

20)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三焦包絡命門辨, p.268.

心主亦曰無形矣 則代心而受邪者 在於心之包絡 使無其形 又當受之何所.

21)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69, 古今諸賢 歷指其爲裹心之膜 固無疑矣

여 진실로 表裏가 된다”²²⁾라 하여 三焦와 包絡의 表裏관계를 설명하였다.

안에서는 心을 心包가 감싸고, 밖으로는 三焦가 臟腑를 한 번 더 감싸 성곽을 두 번 두르는 듯한 형상으로 설명하여 三焦와 包絡이 表裏가 된다고 하고, 모두 외곽에 있으니 陽에 속하고 君主를 보호하는 火이므로 宰相의 火인 相火라고 하였다.

3) 包絡의 字義²³⁾

包絡이라 命名된 字義를 알아보기 위하여 《說文解字》에 나온 ‘包’와 ‘絡’의 字素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包: ‘包’²⁴⁾는 아이를 임신한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는 어떤 대상물을 놓고 감싼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몸 안에서 무언가를 감싼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絡: ‘絡’²⁵⁾은 숨뭉치를 말한다. 아직 실을 뽑아내지 않은 거친 숨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삼(麻)을 아직 물에 담그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絡’이라고 한 것은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 물에 담가 삶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또 經絡에 쓰인 ‘絡’의 의미는 經脈과 經穴의 각 부위를 그물처럼 가로로 이어주는 날줄의 의미인데 ‘絡’이란 어떤 구체적인 옷감이 나오기 이전의 상태인 실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類經圖翼》의 包絡圖

③ 包絡

‘包’와 ‘絡’을 합한 ‘包絡’은 실 같은 것으

22)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69, 三焦爲藏府之外衛 心包絡爲君主之外衛 猶夫帝闕之重城 故皆屬陽 均稱相火 而其脈絡原自相通 尤爲表裏

23) 朴赫圭: 張景岳의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1996

24) 殷玉裁: 說文解字注, 서울, 大成文化社, 1990. p.434.

包: 妊也, 人裹妊, 在中象子未成形也.

25) 앞의 책, p. 659

絡: 絮也(今人聯絡之言 蓋本於此 包絡字 漢人多段落爲之 其實絡之引申也 楊雄傳曰 緜絡天地 以絮喻也). 一曰麻未漚也(陳風曰 東門之池 可以漚麻 傳曰 漚柔也 箋云 於池中柔麻 使可緜績作衣服 按未漚者 曰絡猶生絲之未漚也).

로써 대상체를 감싼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즉 裹心之膜의 뜻으로 心을 감싸고 있는 膜이나 膜과 같은 것이다.

心包絡이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심낭(Pericardium)이나 관상동맥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든 心을 싸고 있는 것으로, 君主之官인 心의 精神作用이 중추신경계를 통하여 전달되면 脈管에 의한 末梢循環 조절기능과 심장박동을 비롯하여 그에 의한 大小循環까지를 心包의 기능으로 보아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갑작스런 심장마비사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곳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된다.

(3) 命門

1) 命門에 대한 문제 제기

《靈樞》 <根結篇>·<衛氣篇>과 《素問》<陰陽離合論> 등에 “太陽根於至陰 結於命門 命門者目也”라고 한 데서 언급한 命門은 “太陽經의 穴이 睛明穴에서 끝나는데 兩 睛明穴 사이가 腦心으로 至明한 곳이므로 命門이라 한다”²⁶⁾고 하였다. 즉, 景岳은 《內經》에서 말한 “命門者目也”라고 한 命門의 目은 睛明穴 사이의 머릿속 한가운데인 腦心이라고 하였다.

또한 《內經》에는 左腎·右腎의 구분도 없었으며 右腎이 命門이라는 說도 없었고, 命門에 대한 문제의 발단은 《難經》<36難>²⁷⁾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고, “王叔和가 腎과 命門은 모두 尺部에서 나온다고 하여 후세에 영향을 끼친 결과 命門表裏의 배속이 있게 되었으나 《內經》에는 실로 없는 것이다”²⁸⁾고 하여 《內經》에서는 命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였다.

命門의 《內經》과 《難經》의 내용을 보고 “《內經》에는 命門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難經》에는 命門에 관한 내용이 있는가”²⁹⁾라는 물음으로 命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難經》의 내용은 모두 《內經》에서 나왔으므로 命門도 반드시 根據가 있을지 모른다. 생각컨대 《內經》의 글이 워낙 오래 되어 그 文章에 빠지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³⁰⁾고하여 命門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難經》에서 말한 右腎爲命門說에 대하여 “오직 右腎만을 命門이라하여 男子는 여기에 精을 저장한다고 하면 左腎은 무엇을 저장하고, 女子는 여기에 胞가 매달려 있다

26)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三焦包絡命門辨, p.269,
此蓋指太陽經穴終於睛明 睛明所來之處 是爲腦心 乃至明之處 故曰命門

27) 《難經》 <36難> 藏各有一耳 腎獨有兩者 何也. 然 腎兩者 非皆腎也. 其左者爲腎 右者爲命門. 命門者 諸神精之所舍 原氣之所繫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故知腎有一也.

28)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三焦包絡命門辨, p.269,
王叔和遂因之 而曰腎與命門俱出尺部 以致後世遂有命門表裏之配 而內經實所無也

29)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內經既無命門 難經何以有之

30)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難經諸篇 皆出內經而此命門 或必有據 意者去古既遠 經文不無脫誤

면 胞는 과연 어떻게 右腎에만 달려 있는 것인가”³¹⁾라고 하여 左腎右命門의 위치적 구분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였다.

2) 命門의 實體와 位置

① 命門은 子宮, 丹田, 血室, 氣海이다

그렇다면 命門은 과연 어디인가에 대하여 “子戶라고 하는 것은 곧 子宮으로 陰門속인데 속칭 ‘子腸’이라고 한다. 그 위치는 直腸의 앞, 膀胱의 뒤로 關元和 氣海 사이에 해당하고, 男子의 精液과 女子의 血液이 모두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 자식이 이곳에서 생겨 나온다. 그래서 子宮은 실로 남자나 여자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³²⁾고 하여 命門을 子宮이라 하고 그 위치와 기능을 이야기하였다.

命門에 대한 설명으로 道家와 醫家の 說을 인용하였는데, 道家에서는 ‘丹田’이라³³⁾ 하였고, 醫家에서는 月事와 관계되는 ‘血室’이라고³⁴⁾ 하여 丹田과 血室과 命門과의 상관성을 이야기하였다.

또 사람이 잉태되는 것을 보고 “胞胎속에 태아가 생기면 모체의 呼吸을 따라 기를 받아 커가고, 태어난 이후에는 한 점의 元靈之氣가 臍下에 모여 스스로 呼吸을 하게 되는데 呼氣는 天氣를 받아들이고 吸氣는 地氣를 받아들인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氣가 가장 중요하므로 ‘氣海’라 한다”³⁵⁾고 한 葉文叔의 말을 인용하여 氣海와 命門과의 상관성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命門의 이름은 비록 丹田, 血室, 氣海와 같이 각각 다르지만 실제로는 子宮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② 命門의 실체는 子宮과 關關之處이다

이와 같이 命門에 대한 다른 명칭들의 실체를 규정하고 이곳의 위치에 대하여 말하였다. 生理的인 구조에 따라 男女를 구분하여 “女子는 손으로 더듬어 만져볼 수 있는데 俗人은 이것을 產門이라고 하고, 男子는 射精을 할 때 닫혔다가 열리는 감각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³⁶⁾고 하였다.

31)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唯是右腎爲命門 男子以藏精 則左腎將藏何物乎 女子以繫胞 則胞果何如而獨系右腎乎

32)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夫所謂子戶者 卽子宮也 玉房之中也 俗名子腸 居直腸之前膀胱之後 當關元氣海之間 男精女血 皆存乎此 而子由是生 故子宮者 實又男女之通稱也

33)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道家以先天眞一之炁藏乎此 爲九還七返之基 故名之曰丹田

34)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醫家以衝任之脈盛於此 則月事以時下 故名之曰血室

35)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葉文叔曰 人受生之初 在胞胎之內 隨母呼吸 受氣而成 及乎生下 一點元靈之氣 聚於臍下 自爲呼吸 氣之呼接乎天根 氣之吸接乎地根 凡人之生 唯氣爲先 故又名爲氣海

36)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其在女者 可以手探而得 俗人名爲產門 其在男者 於精泄之時 自有關關知覺

즉 命門이란 命이 들어오고 나가는 門으로, 이곳으로부터 男子는 命의 응집체인 精을 내보내고, 女子는 男子의 精을 받아 生命을 길러내는 곳이다. 子宮이란 子, 즉 씨의 모인 곳이란 말로 생식기능에 있어 男子는 씨를 담아두었다가 내보는 곳이며, 女子는 씨를 받아 길러내고 또 길러진 生命을 내보내는 곳으로 여자는 ‘產門’이라고도 한다. 男子에 있어서는 精을 내보낼 때 精을 배출을 制御할 수 있는 關門과 같은 곳을 子宮이라 하였는데, 景岳시대에는 이곳에 대한 명칭은 없었으나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이곳은 ‘前立腺’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命門은 先天·後天之 立命之門戶이다

景岳은 命門의 실체에 대하여 子宮이라 하고 命門의 작용에 대하여 生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先天立命之門戶’라고 하였고, 또 命이 생한 후에는 그 命의 堅固함과 消失됨을 관장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後天立命之門戶’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것을 보면 “男女(父母)가 交會할 때 男子의 射精과 女子의 受精이 이 門을 통해 이루어져 身形이 생하기 시작하고, 胎兒가 다 크면 다시 이 門으로 나오게 되어 受精과 出產이 모두 이 門에서 이루어지므로 先天立命의 門戶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³⁷⁾라고 하여 命門을 父母로부터 稟賦받아 先天의 命을 받는 곳이라는 뜻으로 ‘先天立命之門戶’라 하였다.

또한 “出生하고 나면 三焦의 精氣가 모두 이곳에 저장되므로 ‘氣가 모이면 精이 채워지고 精이 채워지면 氣가 왕성해진다’, ‘사람의 생명은 精에 달려있다’, ‘水는 三才의 祖가 되고 精은 元氣의 근본이다’고 하였는데, 精이 없어지면 氣가 없어질 것이고 氣가 사라지면 生命도 없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것이 튼튼해지느냐 없어지느냐가 모두 이 門에 달려 있어 後天立命의 門戶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³⁸⁾라고 하여 태어나고 나서 人身의 元氣는 精으로부터 말미암으므로 精이 사라지면 氣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生命도 없어지게 되니, 命門을 태어난 후의 後天之 命을 받드는 곳이라는 뜻으로 ‘後天立命之門戶’라 하였다.

즉 命門은 한 곳에서 先天의 生을 받기도 하고, 生을 받은 후의 後天에는 人身의 生을 살아가는 근본이 되는 精氣를 貯藏하고 命을 관장하는 門戶인 것이다.

이러한 門戶에 대한 설명으로 <難經><44難>의 七衝門의 예를 들어 “出入하는 곳을 모두 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後天立命의 門이 아주 중요하고 큰 것인데 어찌 이름이 없겠는가? 바로 이곳이 命門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곳이 命門인줄 알게 되면 男子의 藏精하는 곳과 女子의 繫胞하는 곳이 바로 이 命門으로 귀착되니 千古의 의혹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는 것이다”³⁹⁾라고 하여 命門은 有形하며 이름 또한 있다고 하여 오랜 기

37)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夫身形未生之初 父母交會之際 男之施由此門而出 女之攝由此門而入 及胎元既足復由此出 其出其入 皆由此門 謂非先天立命之門戶乎

38)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0, 及乎既生 則三焦精氣 皆藏乎此 故金丹大要曰 氣聚則精盈 精盈則氣盛 梁丘子曰 人生係命於精 珠玉集曰 水是三才之祖 精爲元氣之根, 然則精去則氣去 氣去則命去 其固其去 皆由此門 謂非後天立命之門戶乎

간 의심이 되어온 命門의 논쟁에 대하여 命門은 子宮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命門 즉 子宮의 經과 脈

이와 같이 命門은 右腎이 아니라 子宮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子宮은 별도로 하나의 腑가 되는가, 그리고 만약 腑가 된다면 어떤 經에 배속되며 脈은 또 어디에서 살필 것인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① 命門의 經

命門의 經絡配屬에 대하여는 “12經의 表裏에 陰陽이 이미 배정되어 있는데 命門을 다시 한 經絡에 배속시킨다면 이는 腎臟 한 臟에 經絡이 둘이 되므로 이러한 이치는 있을 수 없다”⁴⁰⁾고 하였는데, 이는 命門은 따로 어느 한 經絡에 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命門이 腎과 별도로 한 經에 배속되지 않는 것은 命門과 腎은 본래 같은 氣이며 命門은 원래 腎에 속하여 별도로 하나의 腑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命門은 子宮의 門戶이며 子宮은 藏精하는 腎臟의 腑이며, 腎臟은 先天眞一之氣를 주관하고 一六水의 방위인 北門을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힘은 坎中之 眞陽(☵)을 저장하는 命門이 얼마나 튼튼한 가에 달려있으며 이것이 一身 生化의 原이 되고, 이 命門과 腎은 본래 같은 氣로 되어 있다”⁴¹⁾라고 하였다.

또 道敎의 經典에서 말한 “이는 上下左右의 中央에 해당하고 그 위치가 太極을 상징하므로 丹田이라한다”⁴²⁾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丹은 奇(單)이기 때문에 北方天一之藏인 腎을 統率하고 外部에 상응하는 腧穴인 命門은 바로 督脈 十四椎의 중앙에 있으므로 이 命門은 본래 腎에 속하는 것이지 다른 腑가 될 수 없다”⁴³⁾고 하여 命門과 腎은 臟腑적인 구분보다는 인체 내에서 眞陰·眞陽은 서로 분리되어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작용한다는 개념으로 命門과 腎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② 命門의 脈

39)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再閱四十四難有七衝門者 皆指出入之處而言 故凡出入之所 皆謂之門 而此一門者 最爲巨會 焉得無名 此非命門更屬何所 既知此處爲命門 則男之藏精 女之繫胞 皆有歸着 而千古之疑 可頓釋矣

40)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十二經之表裏 陰陽固已配定 若以命門而再配一經 是腎藏唯一而經居其兩 必無是理

41)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夫命門者 子宮之門戶也 子宮者 腎藏藏精之府也 腎藏者 主先天眞一之炁 北門鎖鑰之司也 而其所以爲鎖鑰者 正賴命門之閉固 蓄坎中之眞陽 以爲一身生化之原也. 此命門與腎 本同一氣

42)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道經謂此當上下左右之中 其位象極 名爲丹田

43)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夫丹者奇也 故統於北方天一之藏 而其外腧命門一穴 正見督脈十四椎中 是命門原屬於腎 非又別爲一府也

景岳은 命門의 脈에 대하여, 人間은 天地自然의 法則을 따라 그에 맞게 순응하고 살아가는 조화로운 존재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脈의 부위를 설명하였다. 즉, 中國人의 自然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天地와 더불어 살아가는 人身 또한 天地自然의 法則에 순응하여 살아간다는 지극히 자연철학적인 입장에서 中國의 天文과 地形을 가지고 脈의 陰陽, 左右, 水火의 개념을 연관시켜 命門의 脈候 부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命門脈의 배속은 兩尺脈의 左右를 左主水, 右主火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일반적으로 左側이 陽이고 右側이 陰인데 左側에서 水를 보고 右側에서 火를 보는 것은 어떠한 연유인가”⁴⁴⁾라하여 左水右火의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i) 左陽右陰은 理之常이다

일반적으로 左陽右陰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中國人의 자연을 바라보는 오랜 전통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는 《素問》 <陰陽應象大論>의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 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東洋의 東과 西의 左右 개념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서양지도의 방위개념과는 반대로 河圖의 象數에 바탕하여 사람이 해를 향해 남쪽을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좌측이 동쪽이고 우측이 서쪽이 된다. 그리하여 陽은 東方이며 左이고 陽의 精은 上部에 있으므로 上明下虛하여 사람의 上部에 있는 耳目은 좌측이 우측보다 밝다고 하였다. 陰은 西方이며 右이고 陰의 精은 下部에 있으므로 下盛上虛하여 사람의 下部에 있는 手足은 우측이 좌측보다 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인은 左를 陽으로 보고 右를 陰으로 보았다.

ii) 左水右火의 理致

景岳은 左陽右陰의 이치가 당연한 것처럼 左水右火의 이치 또한 天地自然의 法則속에서 찾음으로써 命門脈의 配屬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자 하였다. 左水右火에 대한 법칙은 天左旋 日月右行의 움직임을 가지고 해의 움직임과 별자리의 次序와의 관계에서 ‘水位의 오른쪽이 火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 “사람의 四肢는 본래 地와 相應하는데 地는 西北이 剛하므로 右尺이 陽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⁴⁵⁾고 하여 중국의 지형에 人身의 強弱을 비유하여 땅의 강함은 서북방에 있으며 사람의 手足도 이에 응하여 오른쪽이 더 강하고 脈은 右尺이 陽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脈經》에서는 腎臟의 脈을 兩尺部에 배속시켜 놓았는데, 腎中의 眞陰은 左尺에 나타나고 腎中의 眞陽은 右尺에 나타나는데 命門이 陽氣의 根本이 되므로 三焦相火의 脈을 따라 右尺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옳은 것이다. 그러나 左腎은 腎이 되고 右腎은

44)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夫左陽右陰 理之常也 而此曰左水右火 又何爲然

45)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且人之四體 本以應地 地之剛在西北 亦當右尺爲陽 理宜然者

命門이 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⁴⁶⁾라고 하여 命門의 脈은 右尺에서 보지만 그렇다고 右腎이 命門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iii) 命門은 兩腎을 總括하고 兩腎은 命門에 속한다

景岳은 左右와 水火를 구분하면 左側은 水에 속하고 右側은 火에 속하며 命門은 右尺에 해당한다고 하고, 命門이 가지는 人身에서의 역할로는 “命門은 太極을 상징하고 있어서 消長의 주축이 된다”⁴⁷⁾고 하였다.

또한 醫理를 설명함에 易의 卦象과 數理를 이용하였는데 腎과 命門의 관계를 坎卦(☵)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보면 “水象은 밖에서 보면 어둡지만 안에서 보면 밝고, 坎卦의 안은 陽爻이고 밖은 陰爻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腎은 坎卦 외부의 陰爻와 같고 한 개의 命門은 坎卦 중간의 陽爻와 같으므로 하나로써 둘을 統括하고 둘로써 하나를 감싸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의 命門이 두 개의 腎을 總括하고 두 개의 腎은 모두 命門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⁴⁸⁾고 하였다.

즉 命門에 대한 인식으로는 《難經》<39難>에서 “命門其氣與腎通 則亦不離乎腎耳”라고 한 것을 들어 腎과 命門의 관계는 서로 氣가 통하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며, 命門은 인체의 極과 같은 중요한 곳이지만 별도로 하나의 經이나 脈을 차지하고 않고 두 개의 腎과 더불어 相互作用을 주고받아 水火의 作用을 자유자재로 변환시켜주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4) 命門은 人身의 樞紐

景岳은 命門이 人身의 樞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하였는데 “故命門者 爲水火之府 爲陰陽之宅 爲精氣之海 爲死生之寶”라고 하여 命門이 水火와 陰陽, 精氣가 있는 곳이고 死生이 여기에 달려 있어 이곳이 바로 일생을 살아가는 중심이라고 하였다.

또 命門의 작용에 대하여 “命門이 虧損되면 五臟六腑가 제대로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陰陽病變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天地萬物이 發生하고 盛衰하는 법칙은 뿌리의 盈虧에 따라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다”⁴⁹⁾라고 하여 命門이 生命活動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곳임을 말하였다.

5) 命門의 字義⁵⁰⁾

46)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故脈經以腎藏之脈配兩尺 但當曰 左尺主腎中之眞陰 右尺主腎中之眞陽 而命門爲陽氣之根 故隨三焦相火之脈 同見於右尺則可 若謂左腎爲腎 右腎爲命門則不可也

47)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命門象極 爲消長之樞紐

48)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1, 水象外暗而內明 坎卦內奇而外偶 腎兩者 坎外之偶也 命門一者 坎中之奇也 一以統兩 兩以包一 是命門總主乎兩腎 而兩腎皆屬於命門

49) 앞의 책, 三焦包絡命門辨, p.272, 若命門虧損 則五臟六腑 皆失所恃 而陰陽病變 無所不至. 其爲故也 正以 天地發生之道 終始於下 萬物盛衰之理 盈虛在根

命門이라 命名된 字義를 알아보기 위하여 《說文解字》에 나온 ‘命’과 ‘門’의 字素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命: ‘命’⁵¹⁾이란 부리다, 시키다는 것이다. 口의 시키는 바를 따르는 것으로 ‘口’字와 ‘令’字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이며, 令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君主의 일이며 君主가 아니더라도 口의 시키는 바를 令이라한다. 그러므로 命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 하늘이 내리는 것이며 사람에게 있어서의 命은 하늘이 부여한 바의 命을 받는 것이다.

② 門: ‘門’⁵²⁾은 듣는다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밖에서 그 안쪽을 들을 수 있고 안에서 바깥쪽을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 두 개의 戶에서 서로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이 훗날에는 門이란 사람이 出入하는 곳으로, 집이나 방의 출입구는 戶라 하고 집을 갈라놓은 경계에 있는 것을 門이라 하였다. 醫家들이 사용했던 門의 의미도 景岳이 《難經》의 七衝門⁵³⁾을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처럼 門의 실제적인 의미는 出入之處인 것이다.

③ 命門

‘命’과 ‘門’이 합쳐 이루어진 ‘命門’은 生命이 들어오고 나가는 門이라는 뜻이다.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의 生命을 命門의 작용에 의해서 영위하고 있으며,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後代의 生命 또한 命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現生을 살아가는 자기에 있어서는 이곳으로부터 眞陽과 眞陰을 형성하여 生命現狀을 발휘하고 있으며,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種의 연속은 이곳으로부터 精을 기르고 生을 길러내므로, 命門은 곧 先天後天을 이어주는 고리와도 같은 것이다.

6) <命門餘義>에서의 命門論

景岳은 《類經圖翼》<求正錄>에서 밝힌 命門에 대하여, 훗날 《景岳全書》<傳忠錄>에 <命門餘義>를 두어 命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마저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50) 朴赫圭: 張景岳의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1996

51) 殷玉裁: 說文解字注, 서울, 大成文化社, 1990. p.57.

命: 使也, 從口令(令者 發號也 君事也 非君而口使之 是亦令也 故曰 命者 天之令也).

52) 앞의 책, p.587.

門: 聞也(以疊韻爲訓 聞者 謂外可聞於內 內可聞於外也) 從二戶象形. 凡門之屬皆從門.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台北, 1973. 9卷 p.928.

門: 人所出入也, 在堂房曰戶 在區域曰門. 《玉篇》 一扇曰戶 兩扇曰門 又在堂室曰戶 在于宅區域曰門. 《一切經音義》

53) 《難經》 <44難>

① 補腎不若補腎, 補脾不若補腎

景岳은 許知可의 ‘補腎不若補脾’와 李東垣의 ‘補脾不若補腎’을 놓고, 命門은 精血의 海가 되며 脾胃는 水穀의 海가 되어 命門과 脾胃가 모두 五臟六腑의 根本이 되나 命門은 元氣의 根本이고 水火의 宅으로, 命門의 작용에 의하여 五藏의 陰氣가 滋養되고 五藏의 陽氣가 발생하고, 脾胃는 中州의 土로써 火가 아니면 生할 수 없으며, 脾胃는 灌注의 本으로 後天之氣를 얻으며 命門은 化生의 根源이 되어 先天之氣를 얻는 곳으로 命門과 脾胃의 本末의 先後를 말하자면 命門이 脾胃보다 근원적이라고 하였다.

② 命門에는 火候가 있다(命門有火候)

命門에는 火候가 있는데, 이 火란 元陽으로 物을 生하는 火이다. 景岳은 火候를 上中下 三焦로 나누어 人體에서 나타나는 火候를 설명하였다.

下焦의 候는 地土가 萬物 生成變化의 根本인 것처럼 사람의 壽夭生育과 勇怯精血病治의 기틀이 元陽의 充足과 不足에 달려있다고 하였다⁵⁴⁾. 中焦의 候는 가마솥의 음식을 익혀주는 불과 같이 人身의 脾胃로 들어온 水穀을 腐熟하기 위한 胃中의 陽氣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⁵⁵⁾. 上焦의 候는 太虛와도 같다고 하여 火가 氣를 生하면 氣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火가 神으로 化하면 神이 神靈해지며 사람의 聲色動定과 智·愚·賢·不肖의 차이는 陽德의 쓰임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三焦의 火의 작용을 下焦如地土, 中焦如竈釜, 上焦如太虛라고 비유하여 命門火의 작용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三焦의 火候는 각기 맡은 곳이 있는데 이러한 火를 어떻게 命門으로 돌아오게 하여 人體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眞陽이 淵源에서 일어나지 않은 火는 모두 ‘無根之火’로 火가 無根하다는 것은 病氣이며 元氣가 될 수 없는데 火는 차가운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命門의 陰이 勝하게 되면 元陽과 火가 흩어져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은 따뜻한 陽和之氣를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같은 氣끼리 서로 구하므로 虛陽이 根源으로 돌아오게 된다.

54) 張介賓: 景岳全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8. 傳忠錄, 命門餘義, p.56

下焦如地土者 地土有肥瘠而出產異 山川有厚薄而藏蓄異 聚散操權 總由陽氣 人於此也 得一分則有一分之用 失一分則有一分之虧 而凡壽夭生育 及勇怯精血病治之基 無不由此元陽之足與不足 以爲消長盈縮之主 此下焦火候之謂也

55) 앞의 책, 命門餘義, p.56, 中焦如竈釜者 凡飲食之滋 本於水穀 食強則體壯 食少則身衰 正以胃中陽氣 其熱如釜 使不其然 則何以朝食午即化 午食申即化 而釜化之速 不過如此 觀竈釜之少一炬則遲化一頃 增一炬則速化一時 火力不到則全然不化 即其證也 故脾胃之化與不化 及飲食之能與不能 亦總由陽明之氣有強與不強 而陰寒之邪 有犯與不犯耳 及其病也 則漸痞漸脹 或隔或嘔 或十化其三五 或膨聚而不消 或吞酸噯腐而食氣不變 或腹疼肚痛而終日不饑 或清濁不分 或完穀不化 蓋化則無不運行 不化則無不留滯 運行則爲氣爲血 留滯則爲積爲痰 此其故 謂非胃氣之不健乎 而何以不健 謂非火候之無力乎. 今見治痞治脹 及治吞酸噯腐等症 無論是熱非熱 動輒呼爲胃火 餘燼其幾 尙能堪否 此中焦火候之謂也

56) 앞의 책, 命門餘義, p.56, 上焦如太虛者 凡變化必著於神明 而神明必根於陽氣. 蓋此火生氣 則無氣不至 此火化神則無神不靈 陽之在下則溫煖 故曰相火以立 陽之在上則昭明 故曰君火以明. 是以陽長則陰消 而離照當空 故五官治而萬類盛. 陽衰則陰勝 而陽爲陰抑 故聰明奪而神氣減 而凡人之聲色動定 及智愚賢不肖之有不齊者 何非陽德爲之用 此上焦火候之謂也

그러므로 無根之火의 治는 甘溫한 것으로 大熱을 除하여(甘溫除大熱) 虛火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오히려 寒涼한 藥으로 火를 없애려고 하면 生意가 남지 않고 죽게 된다고 하였다.

③ 命門에는 生氣가 있다(命門有生氣)

命門에는 生氣가 있는데, 《內經》에서 “神을 얻은 것은 昌하고, 神을 잃은 것은 亡한다”⁵⁷⁾라 한 것은 生氣의 작용을 말한 것으로 生氣는 乾元不息하며 生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의 生氣는 있지 않는 곳이 없고 마땅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인체를 살펴보면 臟腑, 顏色, 聲音, 脈息, 七竅, 四肢, 二便에 이르기까지 모두 生氣의 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므로⁵⁸⁾ 이를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生氣를 보전하고 길게 할 것인가 힘써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命門에는 門戶가 있다(命門有門戶)

命門에는 門戶가 있다는 것은, 命門이 門戶의 작용으로 一身을 견고히 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人身의 水를 주관하는 것은 腎에 있으며 腎의 다스려짐은 命門에 있고, 命門은 陰陽의 근본을 담당하여 陰陽이 調和되던 出入에 일정함이 있으나 陰陽이 病이 들면 열고 닫음에 순서가 없게 되어 人身의 水火를 지킬 수 없게 된다⁵⁹⁾고 하였다.

또한 命門의 門戶기능이 약해져서 陰精이 이미 고갈된 것은 壯水가 아니면 行할 수 없고, 陽氣가 이미 허해진 것은 益火가 아니면 고밀하게 할 수 없다⁶⁰⁾고하여 命門의 治法은 陰陽의 虛實을 잘 살펴서 益火壯水해야함을 말하였다.

⑤ 命門에는 陰虛가 있다(命門有陰虛)

命門은 火候를 주관하는 곳인데 이러한 命門에 陰虛가 있다고 하는 것은 邪火가 偏勝한 것이며 邪火의 偏勝은 眞水의 不足에 연유하며, 邪火에는 虛火와 實火가 있는데 實熱의 火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感觸된 연고가 있고 虛熱의 火는 서서히 오는 것으로 陰精이 積損한 데에서 발생한다⁶¹⁾고 하였다.

57) 《素問》 <移精變氣論> 得神者昌, 失神者亡

58) 張介賓: 景岳全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8. 傳忠錄, 命門餘義, p.57

至若人之生氣 則無所不在 亦無所不當 察如藏府有生氣 顏色有生氣 聲音有生氣 脈息有生氣 七竅有生氣 四肢有生氣 二便有生氣 生氣即神氣

59) 앞의 책, 命門餘義, p.58, 是可見北門之主 總在乎腎 而腎之政令 則總在乎命門 蓋命門爲北辰之樞 司陰陽之柄 陰陽和則出入有常 陰陽病則啓閉無序 故有爲癰閉不通者 以陰竭水枯 乾涸之不行也 有爲滑泄不禁者 以陽虛火敗 收攝之無主也

60) 앞의 책, 命門餘義, p.58, 陰精既竭 非壯水則必不能行 陽氣既虛 非益火則必不能固 此固其法也

61) 앞의 책, 命門餘義, p.58, 命門有陰虛 以邪火之偏勝也 邪火之偏勝 緣眞水之不足也 故其爲病 則或爲煩渴 或爲骨蒸 或爲欬血吐血 或爲淋濁遺泄 此雖明是火證 而本非邪熱實熱之比 蓋實熱之火其來暴 而必有感觸之

이러한 火의 治法으로 實熱의 火는 寒水로써 막을 수 있으나, 虛熱의 火는 寒으로 막을 수 없다. 虛熱의 火는 水가 없는 것이니 水를 補하여 火에 配하면 陰陽이 和平하게 되어 病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 만약 虛火를 제거하여 水를 회복하려고하면 이미 虧損된 水는 회복될 수 없으며 火도 함께 사라져 陰陽이 모두 상하게 된다. 또한 苦寒之物에는 生氣가 없어 補하는 理致가 없으므로 熱의 治는 반드시 甘平之劑로써 眞陰을 補해야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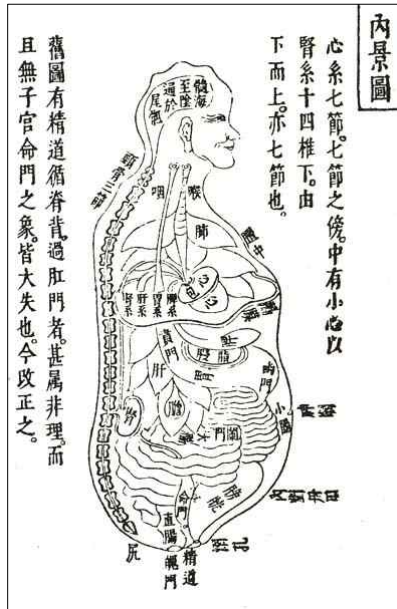
景岳은 이와 같이 <求正錄>에서 ‘命門’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人身의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命門이며, 이 命門에서 元陽의 작용이 발견되며 人身의 生氣 또한 이곳에 매어있다고 하였다. 命門은 또한 陰精이 出入하는 門戶이며 이 門戶의 작용이 안 되면 陰虛하게 되고, 水의 부족에 의한 虛火, 無根之火의 치료는 甘溫, 甘平한 藥으로 益火壯水하면 引火歸源하여 陰陽이 和平해짐을 다시 한 번 <命門餘義>에서 이야기하였다.

(4) 《類經圖翼》의 臟腑圖⁶²⁾

景岳은 三焦·包絡·命門을 有形하다고 보았다. 이들이 有形하다면 이를 설명하는 臟腑圖에도 이에 대한 형상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역대 한의학서적을 살펴보면 臟腑에 대한 그림을 그려 설명한 책은 그리 많지 않으며, 臟腑圖가 있는 책으로는 《醫學入門》, 《醫學正傳》, 《萬病回春》, 《鍼灸大成》 《類經圖翼》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책으로는 《醫方類聚》에 <五臟六腑圖>, 《東醫寶鑑》에 <身形臟腑圖>라 하여 臟腑에 대한 그림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그림을 살펴보면 著者が 人身과 臟腑를 어떻게 파악하였는지의 醫學思想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과 《萬病回春》에는 인체의 臟腑와 器官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구분하여 세세한 이름을 붙여 놓았다. 《東醫寶鑑》에는 五臟六腑와 다른 기관에 대한 간략한 구분이 있으며 다른 그림과 다르게 道教의 養生思想의 영향을 받은 泥丸宮, 玉枕關, 轆轤關, 尾閭關의 명칭이 있다.



<그림 3> 《類經圖翼》의 內景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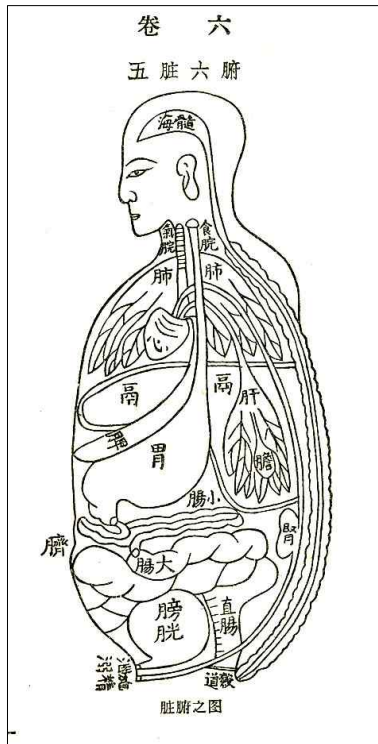
故 虛熱之火其來徐 而必有積損之因 此虛火實火之大有不同也

62) 朴赫圭 : 張景岳의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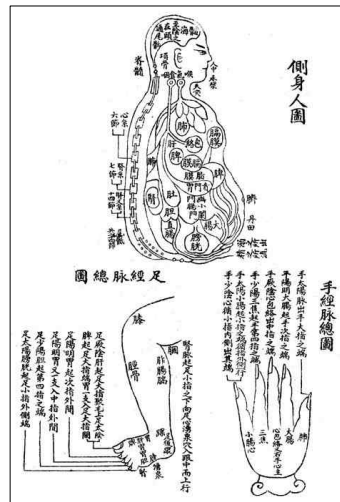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 책에는 三焦·包絡·命門에 관한 내용은 있어도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며, 이는 臟象을 설명함에 三焦·包絡·命門을 이야기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확실한 자신들의 醫論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醫家들과는 달리 景岳은 <類經圖翼>에서 五臟五腑와 三焦, 包絡, 命門을 모두 포함하는 <內景圖>를 그려내었다.

한의학에서 臟腑의 개념이란 보이는 形狀을 가지고 연구해온 서양의 해부·생리학적 개념과는 다르다. 臟腑를 象의 개념으로 파악하였지 눈으로 실체를 보고 그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臟腑圖라 하여도 이것을 해부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臟腑圖라 하기는 어렵고, 臟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形而上學적인 사유로 이해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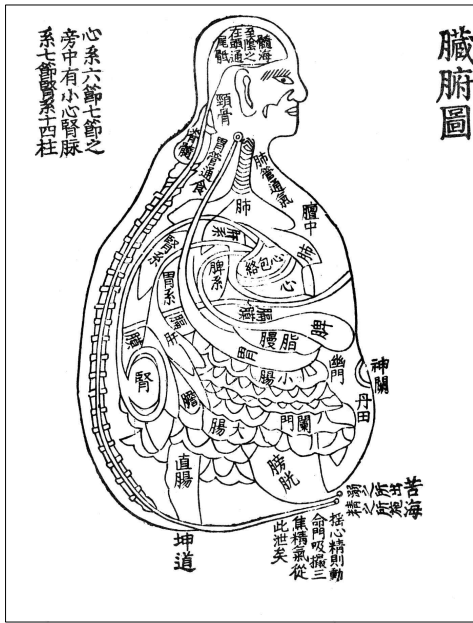
그러므로 한의학적 이론에 맞는 완전한 의미의 臟腑圖는 <類經圖翼>에 있는 <內景圖>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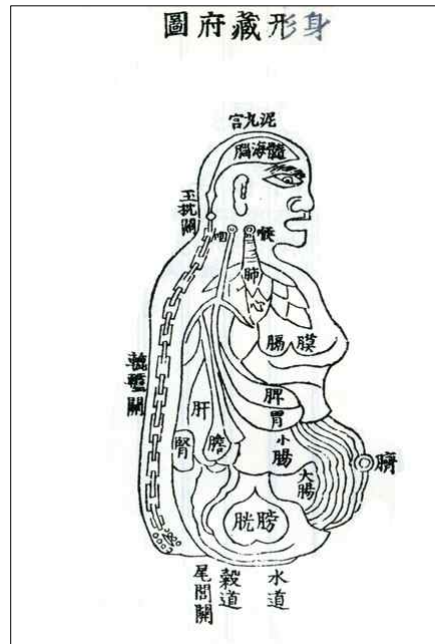
<그림 4> <針灸大成>의 藏府圖



<그림 5> <萬病回春>의 臟腑圖



<그림 6>《醫學入門》의 臟腑圖



<그림 7>《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

2. 大寶論

<大寶論>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人身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大寶란 바로 眞陽이며 이 眞陽이 발현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眞陰이다하여 <大寶論>의 다음에는 <眞陰論>을 이야기하였다.

이 眞陽과 眞陰이 매어있는 곳은 바로 命門이므로 가장 보배로운 眞陽의 用事는 命門의 작용으로 귀납된다. 命門의 작용은 먼저 有形無形論으로부터 시작하여 歷代 醫家들의 수많은 논란거리를 낳았으므로 이의 설명을 위하여 <三焦包絡命門辨>에서 命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낱낱이 밝혔다.

命門의 작용을 파악하자면 그 이전에 陰陽과 水火의 說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독특한 陰陽太少之說로 陰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였다. 그리고 眞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 根本이 바로 命門이라하고 “命門者 先天之生我者 由此而受, 後天之我生者 由此而裁也”라하여 이곳이 先天後天을 이어주는 고리가 되는 생명의 요체임을 말하였다.

(1) 陰陽의 개괄

景岳은 “生命이 매어있는 곳은 陰과 陽으로 陰陽을 알지 못하고서는 醫理를 안다고

할 수 없으므로 陰陽에 대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다”⁶³⁾고하여 生命現狀의 발현은 陰陽의 작용이므로 陰陽을 자세히 변별하고자 하였다.

陰陽에 대한 體, 用, 化, 生殺, 寒熱, 生化의 機, 先天·後天, 水火 등의 分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景岳의 陰陽 分類>

	體	用	化	生殺	寒熱	生化의 機	先天後天	
陽	乾	火	氣	陽主生	熱	先, 施	先天因氣 以化形	神-氣-火
陰	坤	水	形	陰主殺	寒	後, 受	後天因形 以化氣	形-精-水

이와 같이 陰陽에 대하여 분류하였지만 “陰陽 二氣는 가장 치우치지 않아야하니 치우치지 않으면 氣和하여 物을 生하고, 치우치면 氣가 어그러지고 物을 殺한다”⁶⁴⁾라 하여 陰과 陽은 분리되어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陰과 陽은 人身에서 中庸의 道에 합당하도록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함을 중요하게 여겨 이에 대한 설명으로 《素問》 <生氣通天論>에서 “陰平陽秘 精神乃治 陰陽離決 精氣乃絕”이라고 한 것을 들었다.

(2) 陰의 辨別

먼저 陰陽의 개괄을 이야기하고 陰과 陽 각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였는데, 먼저 ‘二’ 즉 ‘陰’에 대해 말하였다.

1) 陰은 形이고 精이다

二는 陰으로 陰이란 形成되는 것, 즉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였다. “陰은 後天의 形이고 陽은 先天의 氣인데, 神은 氣가 化한 것이고 氣는 하늘에 근본하므로 내 몸을 發生하는 것은 眞陽의 氣이다. 形은 精으로 이루어지고 精은 氣에서 生하므로 내 몸을 成立하는 것은 眞陰의 氣이다”⁶⁵⁾라고 하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陰’이라고 보고, 몸을 살아가게 하는 生氣는 ‘陽’이라고 보았다.

63)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求正錄, 大寶論, p.272

爲人不可不知醫 以命爲重也 而命之所繫 惟陰與陽 不識陰陽 焉知醫理 此陰陽之不可不論也

64) 앞의 책, 大寶論, p.272, 陰陽二氣 最不宜偏 不偏則氣和而生物 偏則氣乖而殺物

65) 앞의 책, 大寶論, p.272, 夫二者 陰也 後天之形也 一者陽也 先天之氣也 神由氣化 而氣本乎天 所以發生吾身者 卽眞陽之氣也 形以精成 而精生於氣 所以成立吾身者 卽眞陰之氣也

2) 陽道實 陰道虛

<上古天真論>과 <陰陽應象大論>의 내용을 인용하여 人生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이루는 물질적인 '陰'은 한 번 生하고나면 다시 이루어내기 어렵고, 또 '陰'이란 衰하기 전에 이미 시들어버리므로 陰이란 것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만들어 내기가 어려움을 말하여 人身의 陰은 虛한 것이라 하였다.

景岳은 人生의 전성기에 대하여 <上古天真論> “女子二七而後天癸至 男子二八而後天癸至”의 女二七, 男二八때부터 <陰陽應象大論>에서 “人年四十而陰氣自半也”라고 한 四十까지의 20여년을 人生의 전성기로 보았다. 天癸에 이르러 陰은 이미 하늘에서 부여받은 만큼의 生이 있지만 이것이 成하기는 어려우며 40이후부터는 陰氣가 쇠해지므로 그 이전에 이미 시들어간다⁶⁶⁾고 하였다. 전성기 이후로는 몸이 점차 쇠해져가니 “陽道는 實하고 陰道는 虛하다”고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人身의 전성기 때인 成人의 몸 상태에서는 몸이 건강하고 天癸의 작용이 원활하여 陰陽이 모두 구비되고 안정되어 있으나, 이 불과 20여년을 제외한 나머지 때에는 하늘이 부여한 바의 命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들어 陰陽의 虛實을 이야기하였다.

3) 丹溪의 오류 비판

景岳 이전의 醫學의 조류를 보면 河澗과 丹溪의 主火論이 盛行하였는데, 景岳은 이러한 丹溪의 설을 비판하였다.

丹溪는 해와 달의 차고 이지러지는 것으로 '陽常有餘 陰常不足'이라 하여 知母와 黃柏을 君藥으로 해서 補陰丸·大補丸을 사용하였는데 그 폐해가 막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天癸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나 陰氣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氣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⁶⁷⁾라고 하고, “形은 陰에 속하지만 氣는 陽을 따라가는 것”⁶⁸⁾이므로 人身에 있는 陽을 없애버리면 形의 陰도 함께 해를 입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3) 陽의 辨別

'一'은 陽이라고 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陽의 의의가 매우 큼을 강조하였는데, 造化의 바탕이 되고 性命의 근본이 되는 것은 '陽'이며⁶⁹⁾, 이 '陽'을 다시 形氣·寒熱·水火의 3가지로 나누어 변별하였다.

形氣之辨⁷⁰⁾에서는, 形은 陰으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陽

66) 앞의 책, 大寶論, p.272, 非若陰生在後 而陰成之難乎, 非若陰衰在前 而陰凋之易乎

67) 앞의 책, 大寶論, p.273, 殊不知天癸之未至 本由乎氣 而陰氣之自半 亦由乎氣

68) 앞의 책, 大寶論, p.273, 是形雖在陰 而氣則仍從陽也

69) 앞의 책, 大寶論, p.273, 夫陰以陽爲主 所關於造化之原 而爲性命之本者 惟斯而已

70) 앞의 책, 大寶論, p.273, 夫形氣者 陽化氣 陰成形 是形本屬陰 而凡通體之溫者 陽氣也 一生之活者 陽氣也 五官五藏之神明不測者 陽氣也 及其既死 則身冷如水 靈覺盡滅 形固存而氣則去 此以陽脫在前 而陰留在

氣이며 五官과 五臟의 작용도 陽氣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陽氣가 없으면 몸이 얼음처럼 차고 靈과 覺이 사라져 形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陰多於陽’이라고 하였다.

寒熱之辨⁷¹⁾에서는, 계절의 따뜻함과 싸늘함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봄여름의 따뜻함은 陽이고 가을겨울의 차가움은 陰이며, 長夏의 무더위 속에서 초목과 곤충이 더욱 번성하다가도 하룻저녁의 찬 서리를 맞으면 모두 사그라지게 되니, ‘熱’이 있어야 만물이 성장하며 ‘寒’에는 生하고자하는 뜻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寒強於熱’이라고 하였다.

水火之辨에서는, 자신의 독특한 陰陽太少之說을 들어 日·月·水·火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水火의 象에는 太陽·少陽·太陰·少陰의 네 가지가 있다.

1) 陰陽太少의 분류

景岳은 日月水火에 대하여 “水火의 네 가지 象으로 日은 太陽, 火는 少陽, 水는 太陰, 月은 少陰이며 이것이 四象의 眞形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⁷²⁾이라고 하였다. 이 말의 근거로는 자신이 天地自然속에 살아가며 보아온 天地運行的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日月火水の 분류를 보면 “日이 太陽이라는 것은 해는 하늘에 붙어있어 陽中之陽으로 太陽이다. 月은 하늘에 있으니 陽인 天에 있는 陰이므로 陽中之陰으로 少陰이다. 水는 땅에서 행하는데 땅은 陰이고 땅에 있는 水도 陰이므로 陰中之陰으로 太陰이다. 火는 땅에 있어 陰인 땅에 陽이 있으니 陰中之陽으로 少陽이다”⁷³⁾라고 하였다.

<표 2. 景岳의 陰陽太少에 의한 四象 구분>

	四象	陰·陽
日	太陽	陽中之陽
火	少陽	陰中之陽
水	太陰	陰中之陰
月	少陰	陽中之陰

이와 같이 四象을 분류하고, “丹溪는 해와 달의 盈虧를 가지고 陰陽의 虛實을 보았으니 水가 日보다 큼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陽이 不足한 것과 陰이 太過한 것을 염려하지

後 是形氣陰陽之辨也 非陰多於陽乎

71) 앞의책, 大寶論, p.273, 寒熱者 熱爲陽 寒爲陰 春夏之煖爲陽 秋冬之冷爲陰 當長夏之暑 萬國如爐 其時也 凡草木昆蟲 咸若煎炙 然愈熱則愈繁 不熱則不盛 及乎一夕風霜 卽殭枯遍野 是熱能生物 而過熱者惟病 寒無生義 而過寒則伐盡 然則熱無傷 而寒可畏 此寒熱陰陽之辨也 非寒強於熱乎

72) 앞의 책, 大寶論, p.273, 水火之象 有四 則日爲太陽 火爲少陽 水爲太陰 月爲少陰 此四象之眞形 而人所未達也

73) 앞의 책, 大寶論, p.273, 日麗乎天 此陽中之陽也 非太陽乎 月之在天 陽中之陰也 非少陰乎 水行於地 陰中之陰也 非太陰乎 火之在地 陰中之陽也 非少陽乎

못했을 것이다”⁷⁴⁾라고 하여, 丹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에 대한 반론으로 景岳은 ‘水大於日’하므로 ‘陽不足 陰太過’함을 주장하였다.

2) 景岳의 陰陽太少之說

太少의 理를 들어 陰陽의 性을 설명한 것을 보면, “太란 氣가 剛한 것이며 少란 氣가 柔한 것으로 日은 한없이 비추고 水는 한없이 흘러 지구상에서 닳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하늘의 月은 차고 기울어 있고 땅위의 火는 사그라지고 꺼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太라고 할 수 있는 것은 日과 水이며 月과 火는 少한 것이므로 火는 日의 餘이고 月은 水의 餘이다”⁷⁵⁾고하여 景岳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天地自然의 모습을 가지고서 자신의 독특한 日月水火의 性狀을 이야기하였다.

3) 火와 陽

火와 陽에 대하여, “오직 그 멸하지 않는 것이 眞火이며 때로 일어났다가 때로 멈추는 것은 元陽이라 할 수 없다. 오직 眞陽之火만이 物을 生할 수 있으며, 들판에 타고 있는 모든 火는 物을 태우고 物을 병들게 할 뿐이며 烘炙한 것으로 物을 生하는 것은 없으니 火가 日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⁷⁶⁾라고 하여 眞火, 즉 元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4) 水中에는 陽이 있으며 水가 陽이라는 것은 아니다

水의 太陰에 대한 설명으로 “水가 太陰이라면, 天一生水인데 어찌 水가 陽이 아니겠으며, 水는 萬物을 生하는데 어찌 水가 生氣가 아니겠는가”⁷⁷⁾라는 것에 대하여 易의 數理를 들어 설명하였다.

“天一이란 天의 一이며 一이란 陽이고 水가 萬物을 生하는 것은 이 一에 힘입는 것이며 水의 氣化하는 것도 一에 힘입는 것이다. 土가 春夏의 水를 얻어 生長할 수 있는 것은 이 一이 있기 때문이고, 土가 秋冬의 水를 만나 生長하지 못하는 것은 이 一이 없기 때문이다. 水가 生하는 것과 水가 行하는 것은 陽氣가 主하는 것으로 이는 水中에 陽이 있다는 것이지 水가 陽이라는 것은 아니다”⁷⁸⁾고하여 水는 陽이나 生氣가 아니라 生하는 데의

74) 앞의 책, 大寶論, p.273, 此等大義 誠丹溪所未知 故引日月盈虧 以證陰陽虛實 亦焉知水大於日 獨不慮陽之不足 陰之太過乎

75) 앞의 책, 大寶論, p.273, 夫陰陽之性 太者氣剛 故日不可滅 水不可竭 此日爲火之本 水爲月之根也. 少者氣柔 故火有時息 月有時缺 此火是日之餘 月是水之餘也

76) 앞의 책, 大寶論, p.274, 惟其不滅者 方爲眞火 而時作時止者 豈即元陽 故惟眞陽之火 乃能生物 而燎原之凡火 但能焦物病物 未聞有以烘炙而生物者 是安可以火喻日也

77) 앞의 책, 大寶論, p.274, 若如此言 則水誠太陰矣 然何以云天一生水 水非陽乎 又何以云水能生萬物 水非生氣乎

78) 앞의 책, 大寶論, p.274, 夫天一者 天之 一也 一即陽也 無一則止於六耳 故水之生物者 賴此一也 水之化氣者 亦賴此一也 不觀乎春夏之水 土得之 而能生能長者 非有一乎 秋冬之水 土得之 而不生不長者 非無此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5) 景岳의 誤謬와 陽非有餘

이러한 景岳의 구분은 天地속에 살아가는 人身의 生活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기존의 설을 보면 日은 太陽이고 月은 太陰이며, 水가 少陽이고 火가 少陰인데 이러한 것을 새로이 해석하여 자신의 독특한 陰陽太少之說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一理는 있지만 실제로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본다. 다만, 당시의 현상을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보아 그럴듯하게 보이는 蓋然性의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달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기울고 차는 것이지 실제로는 기울지도 성글지도 않은 본연 그대로 있을 뿐인데 이를 가지고 몸의 陰이 虛하고 實하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적합한 것이다. 火는 타다가 사그라지기도 하므로 少陽이라고 하였는데 火는 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으면 꺼지는 것이 아니다. 水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으므로 太陰이라 하였는데 눈에 보이기에 마르지 않는 것이지 水는 淵源이 고갈되면 얼마든지 마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은 오류이다.

다만, 景岳이 이렇게 말한 것은 설명이 가능한 현상을 가지고 그것이 납득될만한 해석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개연성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즉, 天地自然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이 사람의 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살펴 이를 사람의 生理變化에 적용한 예리한 관찰력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결국 景岳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日月水火의 어떤 것도 日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生化의 기틀이 모두 陽에 매어 있으므로 이 陽이 가장 중요한데, 人體는 하늘에 접하고 살기보다는 땅에 접하고 살고 있어 지구의 구성 물질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사람의 몸은 生命이 떠나고 나면 싸늘한 고체에 지나지 않으니 水가 陽보다 더 크다고 하였으며, 水에서 陽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陽非有餘'함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大寶란 무엇인가?

陽은 生을 主하고 陰은 殺을 主함을 들어서 生命現狀의 발현에 대하여 陰陽의 작용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生에 대한 것을 보면 “萬物の 生은 陽에서 말미암으며 만물의 死 또한 陽에서 말미암으니 陽이 物을 死하는 것이 아니라 陽이 오면 살고 陽이 가면 죽는다”⁷⁹⁾고 하고 “天地

一乎 不惟不生而自且爲凍 是水亦死矣 可見水之所以生 水之所以行 孰非陽氣所主 此水中有陽耳 非水卽爲陽也

79) 앞의 책, 大寶論, p.274, 凡萬物之生 由乎陽 萬物之死 亦由乎陽 非陽能死物也 陽來則生 陽去則死矣

를 調和롭게 하는 것은 오직 이 日이요 萬物을 生하는 것도 또한 이 日이다”⁸⁰⁾라고 하고 “사람은 小乾坤이니 陽을 얻으면 살고 陽을 잃으면 죽는다”⁸¹⁾고 하여 生을 主하는 것은 陽으로 森羅萬象의 生命작용은 이 陽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이야기하였다.

또, 易經의 내용⁸²⁾을 인용하여 陽氣의 德을 말하며 生生의 근본을 매우 중요시하였고, 《內經》 <生氣通天論>의 내용⁸³⁾을 인용하여 “天의 運行과 人의 壽命의 元元 根本이 모두 太陽에 있으며 둘이 아니다”⁸⁴⁾고 하였다.

이렇듯 陽氣의 중요성을 들어 大寶의 실체를 말하였는데, “하늘의 大寶는 이 한 동그라미의 붉은 태양이며 사람의 大寶는 바로 이 眞陽이다”⁸⁵⁾고하여 사람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은 생명현상을 발현해내고 있는 ‘眞陽’이라고 하였다.

(5) 大寶의 根本은 命門이다

이러한 眞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 根本을 알아야 하는데, 그 根本은 바로 ‘命門’이라 하고, “命門이라 하는 것은, 先天의 我를 生하는 것을 이곳으로부터 받으며 後天의 我가 生하는 것을 이곳으로부터 기른다”⁸⁶⁾라하여 이곳이 先天後天을 이어주는 고리가 되는 生命의 요체임을 말하였다.

命門의 작용됨으로는 “生의 門이 곧 死의 戶이니 사람의 盛衰安危가 모두 이곳에 매어 있어 生氣의 근원이 되며 氣가 강하면 강해지고 氣가 쇠퇴하면 病이 된다. 여기가 비록 至陰한 곳이나 실은 元陽의 宅이다”⁸⁷⁾라 하여, 命門을 삶과 죽음의 門戶라 하여 生과 死를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동양사상의 오랜 특징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하여 人身이 天命의 生을 살아가는데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따르고 保全함으로써 인간의 삶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함을 이야기하였다.

80) 앞의 책, 大寶論, p.274, 天地之和者 惟此日也 萬物之生者 亦惟此日也

81) 앞의 책, 大寶論, p.274, 人是小乾坤 得陽則生 失陽則死

82) 앞의 책, 大寶論, p.274, 乾之象曰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此言元貫四德 陽爲發育之首也. 坤之初六曰 履霜堅冰至 此處陰之漸長 防其有妨化育也. 大有之象曰 大有元亨 火在天上 此言陽德之亨 無所不照也. 繫辭曰 天地之大德曰生 此切重生之本也

83) 앞의 책, 大寶論, p.274, 內經曰 凡陰陽之要 陽密乃固. 又曰 陽氣者 若天與日 失其所則 折壽而不彰 故天運當以日光明

84) 앞의 책, 大寶論, p.275, 天之運 人之命 元元根本 總在太陽無兩也

85) 앞의 책, 大寶論, p.275, 天之大寶 只此一丸紅日 人之大寶 只此一息眞陽

86) 앞의 책, 大寶論, p.275, 命門者 先天之生我者 由此而受, 後天之我生者 由此而栽也

87) 앞의 책, 大寶論, p.275, 夫生之門 卽死之戶 所以人之盛衰安危 皆繫於此者 以其爲生氣之源 而氣強則強 氣衰則病 此雖至陰之地 而實元陽之宅

3. 眞陰論

景岳은 人身의 大寶는 ‘眞陽’이며 이 眞陽이 眞陽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은 ‘眞陰’이라는 것으로 <大寶論>의 다음에 <眞陰論>을 이야기하였다.

<眞陰論>의 말미에 老子와 邵康節의 말을 인용하여 眞陽에 대한 짝으로 眞陽을 眞陽답게 하는 것은 眞陰임을 밝히고, 陽을 알면 陰을 간직해야 하며 이러한 眞陰·眞陽을 조절하여 오래도록 保全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으로 眞陰의 핵심을 다분히 함축적으로 나타내었다.

(1) 陰은 陽氣의 根

景岳은 萬物의 死生은 陽氣로부터 말미암으며 陽의 발현을 위해서는 陰의 뒷받침이 있어야하므로 陰은 陽氣의 根이라고 하였다. 人身을 살아가는 데의 眞陽도 중요하지만 따로 떨어져 혼자서만 존재할 수 없는 陰과 陽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陰은 陽이 없어서는 안되니 氣가 아니면 形을 生할 수 없고, 陽은 陰이 없어서는 안되니 形이 아니면 氣를 실을 수 없다. 그러므로 物의 生은 陽에서 生하고 物의 成은 陰에서 成한다”⁸⁸⁾고하여 陰陽에 따른 氣와 形의 相互互根을 말하였다.

또한 陰陽의 관찰에 대하여 “死生을 알고자 하면 陽을 살펴야하며 陽을 살피는 것은 그 쇠함과 쇠하지 않음을 살피는 것이고, 存亡을 알고자 하면 陰을 살펴야하며 陰을 살피는 것은 그 壞함과 不壞함을 살피는 것이니 이것이 生을 보전하는 要法이다”⁸⁹⁾라 하여 陰陽을 살핌으로써 人身의 生死存亡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2) 眞陰의 眞面目

景岳은 여러 사람들이 眞陰에 대하여 그 진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前代 醫家들의 오류는 眞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서 河澗의 主火論과 丹溪의 寒苦한 藥으로 補陰하는 것을 떠받들어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많았는데 이는 時醫⁹⁰⁾들의 잘못이 아니고 실제로는 河澗과 丹溪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 하여 補陰에 대한 苦寒한 藥의 사용을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沈寒한 性에는 절대로 生意가 없으며 補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眞火를 없애버리므로 거듭 사용하면 사람의 精을 차게 하고 無子하게 되며 수명을 감소시키는 데, 이러한 폐단은 陰性이 柔緩하여 옛것을 답습하여 쓰다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⁸⁸⁾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眞陰論, p.275

蓋陰不可以無陽 非氣無以生形也 陽不可以無陰 非形無以載氣也 故物之生也 生於陽 物之成也 成於陰

⁸⁹⁾ 앞의 책, 眞陰論, p.275, 欲知所以死生者 須察乎陽 察陽者 察其衰與不衰 欲知所以存亡者 須察乎陰 察陰者 察其壞與不壞 此保生之要法也

⁹⁰⁾ 時醫: 운이 좋아 일시에 명성을 얻은 의사, 한 때 인기 있는 의사

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⁹¹⁾라고 하여 河澗과 丹溪의 苦寒之劑의 사용에 의한 폐단을 지적하였다.

景岳은 眞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眞陰之象, 眞陰之藏, 眞陰之用, 眞陰之病, 眞陰之治로 상세히 분류하여 眞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1) 眞陰의 象

眞陰의 象에서는 家宅, 器具, 妻妾을 예로 들어 家宅이 財産을 축적하고 器具가 사물을 보호하며 妻妾이 夫를 방탕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陽을 감싸고 保全해주는 것을 陰의 모습에 비유하고 “陰은 陽으로써 主가 되고 陽은 陰으로써 根이 되는 것이다”⁹²⁾고 하여 眞陰은 眞陽의 근본으로 眞陽이 작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眞陰의 象에 대하여는 《素問》〈五藏別論〉⁹³⁾에서 “五藏者 主藏精者也”라 하였으니 精을 傷하게 해서는 안 되며 精을 傷하면 守함을 잃어 陰虛하게 되며 陰虛하면 氣가 없어지고 氣가 없으면 죽는다고 하여 精이 傷함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니 ‘精’이 바로 眞陰이라고 하였다. 또 《素問》〈三部九候論〉에서 “形肉이 이미 분리되었으니 九候가 비록 가지런할지라도 죽는 것과 같다”⁹⁴⁾는 것을 들어 生命의 氣와 분리되는 ‘形’이 眞陰이라고 하였다.

2) 眞陰의 藏

眞陰의 貯藏에 대하여 “五藏의 五液은 모두 精으로 귀속되고 五精은 모두 腎에서 통괄하며, 腎에는 精室이 있으니 이곳이 命門이며, 天一之氣의 거처하는 곳으로 眞陰의 府이다. 精은 이곳에 저장되니 精은 곧 陰中之水이며, 氣는 이곳에서 化하니 氣는 곧 陰中之火이다. 命門은 兩腎之中에 居하여 人身의 太極이 되며 太極에서 兩儀가 나와 水火가 갖추어지고 消長이 매어 있어 生을 받는 始初가 되며 性命의 本이 된다. 眞陰을 治하고자 하는데 命門을 떠나서는 그 治가 되지 않는다”⁹⁵⁾라하여 眞陰의 藏은 命門의 作用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였다.

91)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眞陰論, p.275.

沈寒之性 絕無生意 非惟不能補陰 抑且善敗眞火 若屢用之 多令人精寒無子 且末有不暗損壽元者 第陰性柔緩 而因循玩用 弗之覺耳

92) 앞의 책, 眞陰論, p.276, 此陰以陽爲主 陽以陰爲根也

93) 《素問》〈五藏別論〉 五藏者 藏精氣而不寫也 故滿而不能實

94) 《素問》〈三部九候論〉 形肉已脫 九候雖調 猶死. 七診雖見 九候皆從者 不死.

95)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眞陰論, p.276

故五液皆歸乎精 而五精皆統乎腎 腎有精室 是曰命門 爲天一所居 卽眞陰之府 精藏於此 精卽陰中之水也 氣化於此 氣卽陰中之火也 命門居兩腎之中 卽人身之太極 由太極以生兩儀 而水火具焉 消長繫焉 故爲受生之初 爲性命之本 欲治眞陰而舍命門 非其治也

3) 眞陰의 用

眞陰의 用은 水火의 功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命門의 火를 元氣라 하고 命門의 水를 元精이라고 하였다. 이 命門의 水火는 十二藏의 化源이 되며 五臟六腑가 이에 의뢰하여 각 臟腑의 作用이 발현되며⁹⁶⁾ 이러한 것은 腎藏의 伎巧에 의한 것이나 실제로는 眞陰之用이라 하였다.

4) 眞陰의 病

眞陰의 病에 대하여 “陰氣는 본래 有餘함이 없으며 陰病에는 모두 不足함만이 있으며, 즉 陰이 下에서 勝한 것은 陰이 盛한 것이 아니라 命門의 火가 衰한 것이고, 陽이 標에서 勝한 것은 陽이 盛한 것이 아니라 命門의 水가 부족한 것과 같다”⁹⁷⁾고 하여 陰病은 命門에서 작용하는 水火의 衰虧에 따라 陰虛·陽虛의 虛證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戴陽, 格陽같은 것은 無根之火에 속하며 火不歸源으로 인한 것으로 陰이 不足하여 陽이 배속된 증으로 病이 陰中之水에 있는 것이다”⁹⁸⁾고하고, “上焦·中焦·下焦의 陽虛와 五臟의 陽虛는 陰이 強하여 반대로 극한 것이거나 元氣가 損傷을 입은 것으로 모두 陽이 不足하여 陰이 勝한 것이니 病이 陰中之火에 있는 것이다”⁹⁹⁾고하여 眞陰의 病이 陰中之水에 있는 것과 陰中之火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5) 眞陰의 治

眞陰의 治에 대하여 “病에는 발생한 이유가 있으니 病을 치료하는 데는 반드시 그 根本을 다스려야 한다”¹⁰⁰⁾고 하고 그 根本으로는 “五藏의 本은 命門에 있으며 神氣의 本은 元精에 있으니 이는 곧 眞陰이다”¹⁰¹⁾고 하여 眞陰을 치료하는 근본은 命門에 있다고 하였다.

治療의 원칙으로는 王 氷의 “壯水之主 以制陽光 益火之元 以消陰翳”라 한 것을 들어 眞陰의 치료로 壯水와 益火의 방법을 들었고, 이러한 治法을 사용한 醫家로는 許叔微의 “補脾不如補腎”이라 한 것과 薛立齋가 益火之劑로 仲景의 八味丸과 壯水之劑로 錢乙의 六味丸을 常用한 것을 들었다.

景岳은 仲景八味丸과 錢乙六味丸의 方義를 설명하며 “두 處方에는 모두 茯苓·澤瀉를 사용하여 滲利함이 太過하므로 眞陰이 虛한 것을 다시 泄하게 되어 仲景金匱方은 오히려

96) 앞의 책, 眞陰論, p.277, 心賴之 則君主以明 肺賴之 則治節以行 脾胃賴之 濟倉廩之富 肝膽賴之 資謀慮之本 膀胱賴之 則三焦氣化 大小腸賴之 則傳導自分.

97) 앞의 책, 眞陰論, p.277, 凡陰氣本無有餘 陰病惟皆不足 卽如陰勝於下者 原非陰盛 以命門之火衰也. 陽勝於標者 原非陽盛 以命門之水虧也

98) 앞의 책, 眞陰論, p.277, 凡此之類 有屬無根之焰 有因火不歸原 是皆陰不足以配陽 病在陰中之水也

99) 앞의 책, 眞陰論, p.277, 凡此之類 或以陰強之反剋 或由元氣之被傷 皆陽不足以勝陰 病在陰中之火也

100) 앞의 책, 眞陰論, p.277, 病有所由生 故治病必當求本

101) 앞의 책, 眞陰論, p.277, 蓋五藏之本 本在命門 神氣之本 本在元精 此卽眞陰之謂也

利水之劑가 되니 大補하는 약이라고 할지라도 補力이 감소되어 그 효력을 얻기는 어렵다”¹⁰²⁾고 하였다. 그러므로 六味와 八味는 眞陰이 덜 손상되거나 적절한 증상에는 쓸 수 있으나, 眞陰이 크게 손상된 경우에는 적합한 처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方劑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3) 補陰의 理

景岳은 眞陰의 여러 가지 面目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서 眞陰의 病을 치료하는 補陰의 理致를 설명하였다. <大寶論>에서 말한 人身의 가장 보배로운 眞陽은 眞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人身에서 陰과 陽은 분리될 수 없으니 治水治火 즉, 眞陰과 眞陽을 다스리는 것은 모두 命門에 치료의 관건이 있다는 것이다.

景岳은 자신이 중년에 문득 補陰의 理致를 깨달았다고 하여 자신의 생각을 老子的 ‘知其雄 守其雌’¹⁰³⁾라고 한 것과 邵子¹⁰⁴⁾의 ‘三月春光 留不住 春歸春意 難分付’라고 한 두 편의 詩句를 인용하여 補陰의 理를 다분히 함축적으로 나타내었다.

老子的 ‘知其雄 守其雌’라 한 것에 대하여 “雄은 動하고 作하며 雌는 靜하고 守한다. 그러나 動은 반드시 靜으로 돌아오고 雄은 반드시 雌로 돌아가니 이러한 雄을 알지 않을 수 없고 雌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¹⁰⁵⁾라고 하여 人身의 大寶인 眞陽을 雄이라하고 이를 안다면 眞陰인 雌를 간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邵子の ‘三月春光留不住 春歸春意難分付’라 한 것에 대하여 “돌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春의 집을 묻는다면 이는 어디에 있으며, 陽春에 다리(脚)가 있다면 능히 가고 올 수 있는데, 그 돌아가는 곳을 안다면 저장하고 머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이 봄을 길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다”¹⁰⁶⁾고하여 養生의 理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人身의 青春은 二七, 二八에서 四十까지의 20여 년 동안인데 이 人身의 青春을 오래도록 누리고자 한다면 青春의 원동력이 되는 眞陰과 眞陽을 아끼고 보존해야한다. 이 眞陰·眞陽이 매어있는 곳은 命門으로, 이 命門에서 眞陰·眞陽의 작용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어 眞陰·眞陽의 저장되는 곳을 안다면 이를 오래도록 간직하는 것이 사람의 青春을 길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하였다.

즉 人生의 青春을 오래도록 누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攝生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102) 앞의 책, 眞陰論, p.278, 二方具用茯苓澤瀉 滲利太過 卽仲景金匱 亦爲利水而設 雖曰於大補之中 加此何害 然未免減去補力 而奏功爲難矣

103) 老子: 老子, 三省出版社, 서울, 1982, 28章.
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

104) 邵子: 邵康節.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 李挺之에게서 도가의 圖書 先天 象數의 학을 배웠고, 신비적인 수리학설을 세웠음. 저서로는 《皇極經世書》, 《擊壤集》 등이 있음.

105)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眞陰論, p.278
夫雄動而作 雌靜而守 然動必歸靜 雄必歸雌 此雄之不可不知 雌之不可不守也

106) 앞의 책, 眞陰論, p.278, 凡言歸者 必歸家 爲問春家在何處. 夫陽春有脚 能去能來 識其所歸 則可藏可留 而長春在我矣

이를 통하여 攝生을 중요시한 景岳의 養生思想을 볼 수 있다. 《類經》을 보면 책의 편제에 <攝生類>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러한 것에서도 養生을 중요시한 景岳의 의학사상을 엿볼 수 있다.

(4) 左右歸飲丸

<眞陰論>의 끝에 左歸丸, 右歸丸, 左歸飲, 右歸飲의 處方을 직접 실어서 眞陰을 주하는 左歸丸(飲)에 肉桂·附子의 陽으로 變換시켜주는 藥을 加하면 右歸丸(飲)이 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는 六味와 八味와의 관계와도 같은 이치이며 다만 茯苓·澤瀉는 滲利시키는 약이므로 이를 빼고 다른 약을 더함으로써 眞陰·眞陽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하였다.

左歸飲과 右歸丸, 左歸丸과 右歸丸 4가지 처방은 《景岳全書》<新方八陣>에도 실려 있는데, 《類經附翼》은 1624년에 출판되었고 《景岳全書》는 대략 1637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써 볼 때 景岳은 한 처방의 구성과 가감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⁰⁷⁾

左歸丸과 右歸丸은 人身의 眞陰과 眞陽을 補養하고자 하는 처방으로 이 두 처방의 기원은 《金匱要略》의 八味腎氣丸과 《小兒藥證直訣》의 六味地黃圓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먼저 이 두 처방이 나온 연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左右歸飲丸을 살펴봄으로써 方義를 알아보려고 한다.

1) 八味腎氣丸과 六味地黃圓

① 八味腎氣丸

《傷寒論》이 外邪에 감축된 邪氣를 치료하는 이치에는 밝으나 人身의 精氣를 補하는 것이 부족한 데 비하여 《金匱要略》에는 補하는 方劑를 제시하였다.

八味腎氣丸은 八味地黃丸이라고 하며 異名이 여러 가지이고,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¹⁰⁸⁾에서 처음 나왔으며, 血痺虛勞病條에 속하여 虛勞로 인한 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를 다스리는 것에 사용하여 후세 醫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方劑이다.

《中醫大辭典 方劑分冊》에 나오는 八味腎氣丸¹⁰⁹⁾의 方義를 보면, 肉桂, 附子로 溫補

¹⁰⁷⁾ 최달영 외2: 新方八陣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서울, 2004

¹⁰⁸⁾ 劉渡舟 外 2人: 金匱要略詮解,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4.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 十五. 虛勞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者 八味腎氣丸主之. 腎氣丸方 乾地黃 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澤瀉 丹皮 茯苓 各三兩 桂枝 附子炮 各一兩 上八味末之 煉蜜和丸 梧桐子大 酒下十五丸 加至二十丸 日再服.

¹⁰⁹⁾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中醫大辭典 方劑分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又名 崔氏八味丸, 八味丸, 附子八味丸, 八味腎氣丸, 八味地黃丸, 金匱腎氣丸, 桂附八味丸, 桂附地黃丸. 方中 地黃山茱萸 補益腎陰而攝精氣. 山藥茯苓 健脾滲濕. 澤瀉泄腎中水邪. 牡丹皮 清肝膽相火. 桂附 溫補命門眞火, 引火以歸源. 諸藥合用, 共有溫補腎陽之效. 《太平惠民和劑局方》載本方, 將桂枝改作肉桂, 將乾地黃改作熟地黃.

命門眞火, 引火以歸源하여 여러 가지 약들과 함께 溫補腎陽의 효과가 있으며,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이 처방이 실려 있으며 桂枝가 肉桂로, 乾地黃이 熟地黃으로 改作되었다고 하였다.

② 六味地黃圓

六味地黃圓은 錢乙의 《小兒藥證直訣》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여기에 나온 처방의 명칭은 六味地黃圓이며 元, 丸의 여러 가지로 불린다. 八味地黃丸이 成人의 腎氣虛勞에 의하여 증상을 다스린 것이라면 小兒는 少陽之體이므로 火를 돋구어 주는 肉桂, 附子의 사용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빼고 사용하여도 小兒의 腎氣不足을 충분히 補養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六味地黃圓¹¹⁰⁾을 사용했던 錢乙의 原文을 살펴보면, 주로 小兒의 補腎에 六味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補肝과 骨疾患에도 사용하였다.

《中醫大辭典 方劑分冊》에 나온 六味地黃圓¹¹¹⁾의 方義를 보면, 熟地黃, 山藥, 山茱萸는 三陰을 補하고 茯苓, 澤瀉, 牡丹皮는 淡滲, 清泄火의 효과가 있어, 滋補하면서도 邪氣를 머무르게 하지 않고 降泄하면서도 正氣를 상하지 않으며 補하는 중에 瀉가 있으며 瀉하는 중에 補가 있는 相輔相成의 처방이라고 하였다.

2) 左歸飲, 右歸飲, 左歸丸, 右歸丸

① 左歸飲

左歸飲¹¹²⁾은 壯水之劑로서 命門의 陰衰陽勝한 데 쓰이는 처방으로 六味地黃湯에서 瀉藥인 牡丹皮, 澤瀉를 빼고 三補藥인 熟地黃, 山藥, 山茱萸를 기본으로 枸杞子, 炙甘草을 더한 처방으로 순수하게 補陰에 치우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景岳은 六味地黃湯에서 瀉藥인 茯苓, 牡丹皮, 澤瀉를 빼고 다른 약을 더하여 眞陰을 보하려고 하였으나, 柯琴의 六味에 대한 方義를 보면 茯苓, 牡丹皮, 澤瀉를 빼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더 壯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여 六味에서 꼭 三瀉藥을 빼지 않아도 충분히 補陰할 수 있다고 보았다.

110) 錢 乙: 小兒藥證直訣, 醫聖堂, 서울, 1994.

《小兒藥證直訣》 <卷下 諸方> <地黃圓> 治腎怯失音, 顛開不合 神不足 目中白睛多 面色 光白 光 等方. 熟地黃 八錢 山萸肉 乾山藥 各四錢 澤瀉 牡丹皮 白茯苓去皮 各三錢 上爲末 煉蜜圓 如梧子大 空心 溫水下三圓.

111)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中醫大辭典 方劑分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方中熟地 滋腎填精爲君藥. 以山萸肉 養肝腎而澁精. 山藥 補益脾陰而固精爲臣藥. 三藥同用 而達到三陰並補之功. 並配以茯苓 淡滲脾濕 助山藥之益脾. 澤瀉 青泄腎火, 防熟地之滋膩. 丹皮 清泄肝火, 制山萸肉之溫 共爲佐使藥. 各藥合用 使滋補而不留邪 降泄而不傷正 乃補中有瀉 寓瀉于補, 相輔相成之劑.

112)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眞陰論, p.280

此方壯水之劑也 命門之陰衰陽勝者 宜用此飲加減主之 熟地 二三錢 可加至一二兩 山藥 二錢 枸杞 二錢 炙甘草 一錢 茯苓 一錢五分 山茱萸 一二錢 水二鍾煎七八分 食遠溫服

柯琴은 一陰이 있으면 一陽이 있어야하고 一開하면 一闔함이 動靜之機가 된다고 하였으며, 水에는 壬水, 癸水가 있으며 精은 癸水이고 陰水이며 腎의 體가 되고, 溺은 壬水이고 陽水이며 腎의 用이 된다고 하여 六味地黃湯이 補瀉의 상호작용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補陰하는 방제로 보았다. 六味の 君藥인 熟地黃으로 封蟄之本을 고밀하게하며 佐使藥인 澤瀉로 水道之滯를 疏通하고, 山藥으로 涼補하여 癸水의 上源을 培하고 茯苓으로 淡滲하여 壬水의 上源을 疏導시키며, 山茱萸의 酸溫으로 少陽之火를 收하여 厥陰之液을 滋陰하고 牡丹皮의 辛寒으로 少陰之火를 清하여 少陽之氣를 奉한다고 하여 六味地黃湯을 滋化源, 奉生氣하는 壯水制火의 방제로 보았다¹¹³⁾.

② 右歸飲

右歸飲¹¹⁴⁾은 益火之劑로서 命門의 陽衰陰勝한 데 쓰이는 처방으로 八味地黃湯에서 茯苓, 澤瀉, 牡丹皮의 三瀉藥을 빼고 熟地黃, 山藥, 山茱萸의 三補藥과 溫陽작용의 肉桂, 附子에 枸杞子, 杜沖, 炙甘草를 더한 것이다.

③ 左歸丸

左歸丸¹¹⁵⁾은 眞陰인 腎水の 不足으로 營衛를 滋養하지 못하고 精髓와 津液이 마르는 증상에 左腎의 元陰을 도와 精血이 충족해지도록 壯水하는 데 쓰는 처방이다. 이 처방은 六味地黃丸의 變方으로서 六味丸의 三補藥만을 취하고 三瀉藥은 빼버리고 枸杞子, 菟絲子, 牛膝에 동물성 약재인 鹿角膠, 龜板膠를 넣어서 만든 것이다. 이 처방은 六味에서 비롯하였지만 滋陰하는 효능이 六味보다 더 뛰어나다.

④ 右歸丸

右歸丸¹¹⁶⁾은 元陽이 不足하여 命門火衰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증상에 右腎의 元陽을

113) 吳謙等: 醫宗金鑑,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刪補名醫方論 六味地黃湯.

琴曰 以澤瀉爲瀉 世或惡其瀉腎而去之 不知一陰一陽, 天地之道 一開一闔者 動靜之機 精者屬癸 陰水也 靜而不走 爲腎之體 溺者屬壬 陽水也 動而不居 爲腎之用 是以腎主五液 若陰水不守 則眞水不足 陽水不流 則邪水泛行 故君地黃 以密封蟄之本 卽佐澤瀉 以疏水道之滯 山藥涼補 以培癸水之上源 茯苓淡滲 以導壬水之上源 加以山茱萸之酸溫 借以收少陽之火 以滋厥陰之液 丹皮辛寒 以清少陰之火 還以奉少陽之氣也 滋化源 奉生氣 天癸居其所矣 壯水制火 特其一端耳.

114)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眞陰論, p.280.

此益火之劑也 凡命門之陽衰陰勝者 宜用此飲加減主之 大懷熟地 用法如前 山藥炒 二錢 山茱萸 一錢五分 枸杞 二錢 甘草炙 一錢 杜沖 薑湯炒 二錢 肉桂 自一錢用至二錢 製附子 隨宜用之三錢止

115)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眞陰論, p.278.

治眞陰腎水不足 不能滋養營衛 漸至衰弱 或虛熱往來 自汗盜汗 或神不守舍 血不歸原 或虛損傷陰 或遺淋不禁 或氣虛昏運 或眼花耳聾 或口燥舌乾 或腰痠腿軟 凡精髓內虧 津液枯涸等證 俱速宜壯水之主 以培左腎之元陰 宜此方主之 大懷熟地 八兩 山藥炒 四兩 山茱萸肉 四兩 龜膠 切碎炒珠 四兩 川牛膝 酒洗蒸熟 三兩 鹿角膠 敲碎炒珠 四兩 菟絲子 製熟三兩 枸杞子 三兩 右先將熟地杵膏 加煉蜜和丸 桐子大 每食前 用滾白湯 送下 百餘丸

116)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眞陰論, p.279

도와주는 益火之劑이다. 이 처방은 《金匱要略》의 腎氣丸을 기초로 牧丹皮, 茯苓, 澤瀉를 빼고 枸杞子, 鹿角膠, 兔絲子, 杜沖, 當歸를 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溫補腎陽하고 填精補髓하는 작용을 더 강화하였으므로 腎氣丸에 비해 補하는 효능이 더욱 강력하다. 처방을 살펴보면 溫陽散寒하는 附子和 肉桂에 血肉有情한 동물성 약재인 鹿角膠를 더하여 腎陽을 溫補하고 精血과 骨髓를 補하는 효과를 강화하였다.

3) 熟地黃과 附子の 사용에 능한 景岳

景岳은 <命門餘義>에서 ‘甘溫除大熱’, ‘甘平之劑 專補眞陰’이라 하였다. ‘甘溫除大熱’을 생각해 보면, 命門은 陰精이 出入하는 門戶로 이 門戶의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陰虛하게 되어 水의 부족으로 인한 虛火가 발생하며, 이러한 水源의 不足으로 인한 無根之火의 治療는 甘溫한 藥으로 益火壯水하면 引火歸源하여 虛火를 제압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甘溫한 藥이란 熱性的 附子를 甘草로 制하여 사용한 것이다.

‘甘平之劑 專補眞陰’이라 하여 眞陰을 補하는데는 甘平한 藥으로 사용해야함을 이야기 하였다. 여기서 甘平한 藥이란 熟地黃을 말하는 것인데, 熟地黃은 生地黃을 蒸熟한 것이다. 生地黃의 氣味는 苦寒하여 전혀 溫性이 없으므로 이 生地黃에 火를 加하여 이를 甘平한 藥으로 變性시켜 命門에서 眞陰을 補하는데 더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景岳은 있는 그대로의 附子和 地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적당히 손질을 가하여 자신이 쓰고자 하는 意義에 맞게 변형시켜 사용하였다. 이러한 附子和 熟地黃을 가지고 右歸飲丸과 左歸飲丸의 處方을 創方하였다.

景岳은 熟地黃의 使用에 능하여 ‘張熟地’라 칭하였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附子の 사용에도 능하여 眞陰, 眞陽을 모두 잘 補養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藥을 사용하는 量만 가지고서 ‘張熟地’라고 한다면 景岳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景岳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景岳은 眞陰, 眞陽을 모두 중요시하였고 眞陰, 眞陽의 補養에 모두 能하여 熟地黃의 사용뿐만 아니라 附子の 사용에도 能하였으므로 景岳은 ‘張熟地’라기 보다는 ‘張熟附’라고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景岳全書》에 나오는 熟地黃¹¹⁷⁾에 대한 내용을 보면 景岳이 熟地黃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類經附翼》¹¹⁸⁾과 《景岳全書》¹¹⁹⁾에 나오는 附子の 製法을 보면 景

治元陽不足 或先天稟衰 或勞傷過度 以致命門火衰 不能生土 而爲脾胃虛寒 飲食少進 或嘔惡膨脹 或番胃噎膈 或怯寒畏冷 或臍腹多痛 或大便不實 瀉痢頻作 或小水自遺 虛淋寒疝 或以寒侵谿谷 而肢節痺痛 或以寒在下焦 而水邪浮腫 總之眞陽不足者 必神疲氣怯 或心跳不寧 或四體不收 或眼見邪魔 或陽衰無子等證 俱速宜益火之源 以培右腎之元陽 此方主之 大懷熟地 八兩 山藥炒 四兩 山茱萸微炒 三兩 枸杞微炒 四兩 鹿角膠炒珠 四兩 兔絲子製 四兩 杜沖淡薑湯炒 四兩 當歸 三兩 便溏 勿用 肉桂 自二兩漸可加至四兩 大附子 自二兩漸可加至六兩 因人而用 右丸法如前 或丸如彈子大 每嚼服二三丸 以滾白湯送下 則效速更妙

117) 張介賓: 景岳全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8. 景岳全書 本草正

陰虛而神散者 非熟地之守 不足以聚之 陰虛而火升者 非熟地之重 不足以降之 陰虛而躁動者 非熟地之靜 不足以鎮之 陰虛而剛急者 非熟地之甘 不足以緩之 陰虛而水邪泛濫者 舍熟之 何以自制 陰虛而眞氣散失者 舍熟地 何以歸源 陰虛而精血俱損 脂膏殘薄者 舍熟地 何以厚腸胃.

118)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類經附翼 製附子法, p.280

岳은 附子를 사용함에 자신만의 독특한 附子의 炮製法을 이용하여 附子의 독성을 자신의 처방의도에 맞게 완화시켜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4. 十二藏脈候部位論

景岳이 이 편에서 말하고자한 것은 한 理論이 정립되었으면 그 이론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 이론이 모순됨이 없이 온전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命門·三焦를 이야기하여 자신의 이론이 맞다면 이를 진단하는 脈候에 있어서도 기존의 脈學으로는 자신의 주장과 모순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脈候部位를 재정리하여 자신의 올바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景岳은 다른 의가들, 즉 王叔和, 高陽生의 脈理와는 이견을 보여 자신이 생각해왔던 大腸, 小腸의 위치와 命門과 三焦, 心包의 위치, 그리고 12經絡에는 있는데 脈에서는 살필 수 없는 오류 등, 이것저것을 묶어서 12臟腑의 脈과 部位를 자신의 이론과 합당하도록 새로운 脈候部位論을 제시하였다.

새로이 脈候를 배속하여 <求正錄> 전반에 걸쳐 자신의 理論展開와 治方의 제시, 脈候의 검증 등 논리전개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1) 脈候部位

기존의 高陽生과 王叔和의 脈候부위를 살펴보면 左手에서는 心小腸肝膽腎을 살피고 右手에서는 肺大腸脾胃命門을 살피며 心包와 三焦는 無形이므로 脈으로 살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脈理는 <內經>의 五行 배속에는 없는 것인데 後世 醫家들이 밝힌 것으로 左尺은 水이고 水生木하므로 左關은 木이고, 木生火하므로 左寸은 火이고 左寸의 君火는 相火를 따라 右尺으로 가서 命門火를 살피며, 火生土하므로 右關은 土이고 土生金하므로 右寸은 金으로 여기서 脈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¹²⁰⁾

擇大附子重兩許者 半觔可得製淨 附子六兩 先用大甘草四兩 煎濃湯浸附子 至二三日 剝去剝皮 切四塊 又浸一日 俟其極透 取起少晾 卽切爲片 用微火徐炒 至七分熟意 卽可用矣 若炒至太過 恐全失其性.

119) 張介賓: 景岳全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8. 景岳全書 毒草部 附子制法

用甘草 不拘大約 酌附子之多寡 而用甘草煎 極濃搗湯 先浸數日 剝去皮臍 切爲四塊 又濃煎甘草湯 再浸二三日 捻之軟透 乃咀爲片 入鍋 文火炒之 將乾 庶得生熟勻等 口嚼尚有辣味 是其度也. 若炒太乾 則太熟而全無辣味 并其熱性全失矣 故制之太過 則但用附子之名耳 效與不效 無從驗也 其所以必用甘草者 蓋以附子之性急 得甘草而後緩 附子之性毒 得甘草而後解 附子之性走 得甘草而後益心脾 附子之性散 得甘草而後調營衛. 此無他亦不過濟之以仁而後 成其勇耳 若欲急用 以厚紙包裹 沃甘草湯 或煨或炙 待其柔軟切開 再用紙包 頻沃 又炙以熟爲度 亦有用麵裹而煨者 亦通 若果真中陰寒厥逆 將危者 緩不及制 則單用炮附 不必更用他製也.

120)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十二藏脈候部位論, p.281.

經文雖無五行所屬之分 而後世諸賢以左尺爲水 生左關木 木生左寸火 君火類從於右尺而爲相火 火生右關土

<표 3. 脈經의 脈候部位>

寸	左			右	
	火(君火)	心 小腸		肺 大腸	金
關	木	肝 膽	脾 胃	土	
尺	水	腎 膀胱	命門	火(相火)	

1) 《脈經》의 脈候部位

《脈經》 <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 第七>¹²¹⁾을 보면 肝心은 左, 脾肺는 右에서 살피며, 腎과 命門은 尺部에서 살핀다고 하였으며, 이는 《脈法讚》이라는 古醫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左手의 寸口에 心, 小腸이 있으며, 左手의 關上에 肝, 膽이 있으며, 左手의 尺中에 腎, 膀胱이 있으며, 右手의 寸口에 肺, 大腸이 있으며, 右手의 關上에 脾, 胃가 있으며 右手의 尺中에 腎, 膀胱이 있다고 하였다. 臟과 腑는 표리관계에 의하여 배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左手, 右手 양쪽 모두에 腎, 膀胱이 있다고 하였으며, 左는 腎에 속하고 右는 子戶가 되며 三焦라고 한다¹²²⁾고 하는 등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景岳은 바로 이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2) 《四言舉要》의 脈候部位

明代의 李月池·言聞이 지은 《四言舉要》¹²³⁾에 臟腑의 定位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를 보면 “心肝居左 脾肺居右 腎與命門 居兩尺部 魂魄穀神 皆見寸口 左主司官 右主司府”라 하여 《脈經》에서 나오는 맥후부위를 따르고 있으며 五臟과 命門에 대한 배속은 있으나 腑에 대한 脈候의 배속은 나오지 않았다.

土生右寸金而止 甚屬有理

121)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6

脈法讚云 肝心出左 脾肺出右 腎餘命門 具出尺部. 魂魄穀神 皆見寸口. 左主司官 右主司府.

122)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18.

心部在左手關前寸口是也 卽手少陰經也. 與手太陽爲表裏 以小腸合爲府. 合于上焦 名曰神庭 在龜尾下五分. 肝部在左手關上是也 足厥陰經也 與足少陽爲表裏 以膽合爲府. 合于中焦 名曰胞門 在太倉左右三寸. 腎部在左手關後尺中是也 足少陰經也 與足太陽爲表裏 以膀胱合爲府 合于下焦 在關元左. 肺部在右手關前寸口是也 手太陰經也 與手陽明爲表裏 以大腸合爲府 合于上焦 名呼吸之府 在雲門. 脾部在右手關上是也 足太陰經也 與足陽明爲表裏 以胃合爲府. 合于中焦脾胃之間 名曰章門 在季肋前一寸半. 腎府在右手關後尺中是也 足少陰經也 與足太陽爲表裏 以膀胱合爲府 合于下焦 在關元右. 左屬腎 右爲子戶 名曰三焦.

123)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고문사, 1985. p.1800.

《四言舉要》는 《瀕湖脈學》과 함께 《本草綱目》의 부록으로 실려 있으며, 明代의 李月池·言聞이 宋代 崔嘉彦이 撰한 《脈訣》을 근거로 하고 이를 刪補하여 지은 것이다.

3) 李梴의 脈候部位

明代의 李梴이 지은 《醫學入門》 <診脈·臟腑定位>에 臟腑의 定位에 대한 내용이 있다. 李梴은 左側에 心小腸, 肝膽, 腎膀胱을 배속하고 右側에 肺大腸, 脾胃, 命門·三焦를 배속하였으며 臟과 腑의 배속은 《脈經》에서와 같이 表裏관계로 배속하였다.

이러한 脈候의 寸關尺 배속에 대하여 五行의 상생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였는데 “순환의 순서로 말하면 左尺 水에서 水生木하여 左關을 生하고, 左關木에서 左寸火를 生하고 左寸火에서 右尺火로 接하고, 右尺火에서 右關土를 生하고, 右關土에서 右寸金을 生하고 右寸金에서 左尺水를 生하여 生生之意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이것은 子母之親이 있는 것이다”¹²⁴⁾라 하여 左寸火에서 右尺火로는 火候를 따라 이어지고 右寸金에서 左尺水로는 金生水가 되어 순환된다고 보았는데 左寸에서 右尺의 순행과 右寸에서 左尺의 순행이 일치하지 않는 논리적 결함이 생기게 되며, 景岳은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았다.

李梴은 左手, 右手의 脈候配列을 五行의 상극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였는데, “對待의 위치로 보면 左寸火가 右寸金을 剋하고 左關木이 右關土를 剋하고 左尺水가 右尺火를 剋하니 左剛右柔하며 이는 夫婦之別이 있는 것이다”¹²⁵⁾고 하였다. 또한 君火相火의 위치에 대하여는 “左手는 陽에 속하고 右手는 陰에 속하며, 左寸君火는 존귀하므로 在上하고 右尺相火는 卑하므로 在下하니 이는 君臣之道가 있는 것이다”¹²⁶⁾고 하였다. 이렇듯 李梴은 臟腑의 맥후부위를 子母, 夫婦, 君臣의 관계를 들어 儒家적인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4) 李時珍의 臟腑部位

明代 李時珍은 《本草綱目》의 附錄으로 撰述한 《脈訣考證》의 <臟腑部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臟腑의 脈候部位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첫머리에서 <脈訣非叔和書>라 하여 세속에 전해지는 《脈訣》은 王叔和가 저술한 글이 아니며, 후대의 누군가가 王叔和의 이름을 도용하여 지은 것이라고 하면서 《脈訣》의 잘못된 곳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였다.

<臟腑部位>에서는 王宗正¹²⁷⁾, 趙繼宗¹²⁸⁾, 吳草廬¹²⁹⁾ 등 자신의 脈候部位에 대한 견

124) 李 梴: 醫學入門, 南山堂, 서울, 1985. 診脈 臟腑定位, p.384.

循環之序言之則 左尺水生左關木 左關木生左寸火 左寸火接右尺火 右尺火生右關土 右關土生右寸金 右寸金生左尺水 生生之意不絕 有子母之親也.

125) 앞의 책, 臟腑定位, p.384, 對待之位言之 左寸火剋右寸金 左關木剋右關土 左尺水剋右尺火 左剛右柔 有夫婦之別也

126) 앞의 책, 臟腑定位, p.384, 左手屬陽 右手屬陰 左寸君火 以尊而在上 右尺相火 以卑而在下 有君臣之道也

127)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고문사, 1985. 脈訣考證 臟腑部位, p.1782.

王宗正曰 診脈之法 當從 心肺俱浮 肝腎俱沈 脾在中州之說 王叔和 獨守寸關尺 分部位 以測 五臟六腑之脈者 非也

128) 앞의 책, 臟腑部位, p.1782, 趙繼宗曰 脈訣言 左心小腸肝膽腎 右肺大腸脾胃命者 非也 心肺居上 爲陽爲

해가 비슷한 의가의 설을 인용하였으며, “양손의 寸關尺 六部는 모두 肺經의 經脈이다. 특히 이 경맥을 취하여 五臟六腑의 氣를 살필 따름이지 五臟六腑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診察할 때에는 肺·心·脾·肝·腎으로 각각 一動씩을 살펴서 五十動 동안에 멈춤이 없으면 五臟의 氣가 충족된 것이고, 五十動 동안에 멈춤이 있으면 一臟의 脈이 이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肺經 한 經脈으로 五臟六腑의 氣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⁰⁾고 하여 寸關尺의 表裏로써 五臟六腑의 氣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肺經 한 經脈의 박동, 즉 脈動의 止不止에 의하여 五臟六腑의 氣를 살핀다고 하였다.

李時珍의 《瀟湖脈學》을 보면 臟腑의 定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보이지 않으며, 浮沈遲數 등 27脈에 대한 體狀, 相類, 主病에 대하여 서술하였음을 볼 수 있다.

(2) 景岳의 문제 제기

기존의 脈候부위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脈理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는데, “《內經》에는 經絡이 있다고 잘 드러나 있는데 어찌 그 經絡이 있으나 脈이 없겠으며, 또 어찌 大·小腸의 위치는 人身의 아래에 놓여 있는데 脈은 兩寸의 높은 곳에 나타나겠는가”¹³¹⁾라고 하여 三焦와 包絡은 12經絡에는 있는데 脈에서는 살필 수 없으니 이들을 어디에서 살필 것이며, 大腸과 小腸은 人身의 下腹部에 있는데 脈은 兩寸의 上部에 있으니 기존의 脈候에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기존의 脈候부위는 火는 火의 類를 따라 左寸(心君火)에서 右尺(命門相火)으로 이어지지만 右寸의 金은 金의 類를 따르지 못하고 12經氣의 흐름이 右寸에서 멈추게 되므로 如環無斷하고 生生不息하는 인체 經絡의 流注에는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3) 景岳의 脈候部位

浮 肝腎 居下 爲陰爲沈 脾居中也 半陰半陽 半浮半沈 當以左寸爲心 右寸爲肺 左尺爲肝 右尺爲腎 兩關 爲脾 關者 陰陽之界限 前取陽三分 後取陰三分 所謂土 居金木水火之中 寄旺于四時 不獨右關爲脾也 肝既爲陰 豈宜在半陰半陽 半浮半沈之左關也 命門 卽是腎 不宜以右尺 爲診

129) 앞의 책, 臟腑部位, p.1783, 吳草廬曰 醫者 于寸關尺 輒名之曰 此心脈 此肺脈 此肝脈 此脾脈 此腎脈者 非也 五臟六腑 凡十二經 兩手寸關尺者 手太陰肺經之一脈也 分其部位 以候他臟之氣耳 脈行 始于肺 終于肝而復會于肺 肺爲氣所出之門戶 故名曰氣口 而爲脈之大會 以占一身焉

130) 앞의 책, 臟腑部位, p.1783, 李時珍曰 兩手六部 皆肺經之經脈也 特取此 以候五臟六腑之氣耳 非五臟六腑所居之處也 凡診察 皆以肺心脾肝腎 各候一動 五十動 不止者 五臟皆足 內有一止 則知一臟之脈不至 據此推之 則以肺經一脈 候五臟六腑之氣者 可心解矣 楮儲趙氏 不知脈隨五臟之氣 行于經遂之間 欲以男女臟腑 顛倒部位 執泥不通 戴同父 言楮氏 倒裝五臟 丹溪 別男女寸尺 草廬 明三部皆肺 三說 澗有真見 學者所當宗師 若夫趙氏所云 蓋本于宋人王宗正 難經圖解 豈知脈分兩手 出于素問 脈要精微論 而越人 推明關脈 及一脈十變于難經 非始于孰和也 若如其說 則一脈十變 何從推之 可謂鑿而任矣 ○ 命門 卽腎之說 乃越人之誤也 予嘗著命門考 命門三焦客難二說 凡二千餘言云.

131)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十二藏脈候部位論, p.281.

內經顯然有大經絡 豈有有經絡而無脈者 亦豈有大小腸位居極下 而脈見於兩寸至高之地者

1) 大腸, 小腸의 脈候

大腸과 小腸의 脈候에 대하여는 大·小腸은 人身의 아래에 있으므로 양손 寸關尺에서도 下部에 해당하는 尺에서 살펴야한다고 하였다. 大·小腸의 左右는, 小腸은 火의 類이므로 右尺에서 살펴 左寸의 心火가 연락되고, 大腸은 金의 類이므로 左尺에서 살펴 右寸의 肺金이 연락되어 左右 12經絡의 經氣가 끊어지지 않고 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大腸은 左尺, 小腸은 右尺에 배속하였다.¹³²⁾

2) 三焦, 心包的 脈候

三焦와 心包的 脈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三焦는 上中下에서 脈候가 나타나야 하지만 ‘腎合三焦膀胱’¹³³⁾이라 한 것에서 腎脈은 兩尺에서 보이니 三焦脈 또한 尺에서 살펴, 三焦는 五臟六腑의 總司이고 腎은 五臟六腑의 根本으로 이는 “尺脈을 취하여 사람의 病形을 定한다”는 《靈樞》<論疾診尺篇>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膀胱과 三焦의 左右로는, 膀胱은 水에 속하니 左에서 脈候를 보고 三焦는 火에 속하니 右에서 脈을 살핀다고 하였다.¹³⁴⁾

心包는 左寸에서 脈候를 살피는데 膈膜 위로는 心和 肺 두 臟만이 있는데, 心包는 心을 보호하는 막이며 膈上에 붙어 있으므로 脈은 左寸에서 살핀다고 하였다.¹³⁵⁾

이와 같이 《內經》에서 말한 12經絡중에 手少陽三焦經, 手厥陰心包經의 經絡의 이름은 있는데 無形之腑라고하여 脈候에 배속하지 않은 것을 三焦는 右尺에, 心包는 左寸에 배속하여 三焦와 心包的 脈候를 지정하였다.

3) 命門의 脈候

命門의 脈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命門은 腎에 소속된 것으로 脈候는 腎을 따른다. 腎은 하나지만 脈候는 兩尺에서 나타나는데, 左尺에서는 腎中之 元陰을 살펴 右尺에서는 腎中之 元陽을 살핀다. 命門은 眞陽이 주가 되므로 脈은 腎元陽을 따라 右尺에서 살핀다.¹³⁶⁾

¹³²⁾ 앞의 책, 十二藏脈候部位論, p.281, 今既有此五行之分 則小腸在下 當候於右尺 所以從火也 大腸在下 當候於左尺 以金從水也.

¹³³⁾ 《靈樞》<本藏篇>

¹³⁴⁾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十二藏脈候部位論, p.281.

三焦雖當候於上中下 然靈樞本藏篇曰 腎合三焦膀胱 今腎脈候於兩尺 是三焦亦當候於尺 且三焦爲五藏六腑之總司 腎爲五藏六腑之根本 故靈樞論疾診尺篇 獨取尺脈以定人之病形 其義蓋亦在此 但膀胱屬水 故候於左 三焦屬火 故候於右

¹³⁵⁾ 앞의 책, 十二藏脈候部位論, p.282, 若心主之脈 正當候於左寸 蓋以膈膜之上 獨惟心肺兩藏居之 而心包爲護心之膜 附於膈上 故脈當候於左寸

¹³⁶⁾ 앞의 책, 十二藏脈候部位論, p.282, 命門者 爲腎之所屬 故脈候當隨於腎 腎一也 而何以候於兩尺 腎中之元陰 當候於左尺 腎中之元陽 當候於右尺 陰宜靜 故左嫌浮豁 陽畏衰 故右嫌細微 然命門之氣 以陽爲主 故當附候於右尺

(4) 十二藏脈候部位의 意義

이를 종합해보면, 左寸은 心臟의 火로 右尺 小腸命門의 火로 통하고, 右尺의 火로부터 火土相生하고 土生金하여 위로 右寸의 金이 된다. 右寸의 肺金은 左尺의 大腸金으로 통하고, 左尺으로부터 金水相生하여 水生木, 木生火하여 위로 左寸에 이른다. 木火土金水 五臟의 相生循環이 左右上下로 마침과 시작됨이 끊어짐이 없으니 12經 流注循環의 妙에 상합되어 人身의 氣는 쉬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나타낸다.¹³⁷⁾

六腑의 脈候에 대하여는 “六腑의 脈候는 비록 밝은 가르침은 없으나 다만 上下陰陽의 뜻으로써 추측한다면 이미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¹³⁸⁾고하여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上下陰陽의 理致로 잘 생각하면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景岳은 기존 학설의 脈候部位로는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三焦·包絡·命門에 대한 구체적 실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이론전개와 부합되도록 이들에 대한 脈候의 부위를 설명하였고, 人身의 氣는 하나의 고리와도 같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순환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존의 脈理로는 經絡의 순환과 일치하지 않고 흐름이 끊어지게 되므로 大·小腸의 部位를 재배치하여 人體의 氣의 흐름이 12經 流注 循環의 묘리와 상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說은 景岳의 독특한 理論이지만, 人身의 生命 또한 上下陰陽의 법칙에 부응하여 살아가며 天地自然의 運行이 쉽지는 것처럼 人身의 運行 또한 쉽지는 움직인다고 보는 東洋思想의 특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표 4. 景岳의 脈候部位>

		左		右		
寸	火	心 心包		金	肺	
關	木	肝 膽		土	脾 胃	火土相生
尺	水	腎元陰	金水相生	火	腎元陽	
		膀胱 大腸			小腸 命門 三焦	

Ⅲ. 考 察

景岳은 <求正錄>을 지어 그 바름(正)을 求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에는 <三焦包絡命門

¹³⁷⁾ 앞의 책, 十二藏脈候部位論, p.282, 左寸心藏之火 通於右尺小腸命門之火 自右尺火土相生而上右寸 右寸肺藏之金 通於左尺大腸之金 自左尺金水相生而上左寸 左右上下 終始無端 正合十二經流注循環之妙

¹³⁸⁾ 앞의 책, 十二藏脈候部位論, p.282, 惟是六腑之候 雖無明訓 而但以上下陰陽之義測之 則已暗藏之矣

辨> <大寶論> <眞陰論> <十二藏脈候部位論>의 4편의 論說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의 醫論을 주장하였으며 <求正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命門에 관한 것이다. 景岳은 논리전개에 있어서 <求正錄> 전반에 걸쳐 자신의 理論展開와 治方의 제시, 脈候의 검증 등 어느 한 부분도 논리적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다.

三焦와 包絡 및 命門에 대하여는 古來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름은 있지만 형체가 있는가 없는가 기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近者의 論文을 보면 오늘날에는 대체로 形體의 有形에 대한 是非는 큰 意義가 없고 단지 그 기능적 작용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¹³⁹⁾고하여 오늘날까지도 議論이 분분함을 알 수 있다.

景岳은 이러한 三焦·包絡·命門이 한의학의 중요한 부분이며 <內經>에서부터 다른 것이지만 오랜 세월동안 形體나 機能에 대한 명확한 論說이 부족한 것을 보고 <三焦包絡命門辨>에서 三焦·包絡·命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설을 하였다.

景岳의 인식의 바탕을 보면 이름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形狀이 있으며, <難經>에서 三焦를 ‘有名而無形’이라 하고 命門은 ‘左腎右命門’이라 하였지만 <難經>의 內容은 <內經>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며 <內經>의 말은 글자하나, 문구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으므로 三焦와 包絡과 命門은 모두 形體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儒家의 正名思想과 一脈相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焦에 대하여는, 腹腔周圍의 上下全體에 큰 주머니와 같으며 몸의 안쪽에 한 겹으로 붙어있고 형태와 색깔이 아주 붉어서 마치 六음을 상징하며 여러 陽을 모두 호위하는 것이라 하여 몸의 피부와 장부기관 사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두르고 있는 體腔 전체를 三焦라고 하였다. <五癰津液別論>에서 나오는 “溫肌肉 充皮膚, 指肌肉之內 臟腑之外”하는 것이 三焦라고 하였고, <背俞篇>에서 俞穴이 焦間에 있다는 내용의 ‘焦’란 몸동 아리를 가지고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三焦에 대한 생각은 晩年の <質疑錄>에 와서는 三焦에 대한 생각이 확대되었다. <質疑錄> <論三焦有幾>를 보면 三焦에는 3가지 三焦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經으로 論하면 手少陽三焦로서 인체의 上部를 주관하고, 둘째, 腑로 論하면 足太陽三焦로서 인체의 下部를 주관하고, 셋째, 氣로 論하면 兩腎 原氣의 三焦로서 인체의 內部를 운행한다. 手少陽三焦와 足太陽三焦는 有形의 腑이며, 兩腎間의 原氣는 無形의 三焦이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景岳은 자신의 기존이론에 대해서도 批判과 修正을 가하였으며 미진한 내용에는 끊임없이 보완과 보충을 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心包絡에 대하여는, <靈樞><邪客篇>에서 邪氣가 心에 있으면 죽게 되니 心의 邪氣는 모두 心의 包絡에 있다는 것으로 心包의 有形을 말하였다. 心包의 無形에 대하여는 心의 邪氣를 대신 받는 有形한 곳인 心包가 존재해야 하며 無形일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心包의 실체는 “古今諸賢歷指其爲裹心之膜 固無疑矣”라하여 心을 싸고 있는 膜이라 하였다.

139) 金重漢, 張介賓의 醫學思想과 理論批判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서울, 1986.

包絡이心を싸고 있는膜이라고 하여 현대 의학적으로 심낭(Pericardium)이라고 보는 이도 있으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君主之官인 心の 精神作用이 중추신경계를 통하여 전달되면 脈管에 의한 末梢循環 조절기능과 심장박동을 비롯하여 그에 의한 大小循環까지 心包의 기능으로 보아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켜 갑작스런 심장마비사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곳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命門에 대하여는, 女子는 子宮이고 男子는 關關之處라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命門이란 命이 들어오고 나가는 門이라는 말로 이곳으로부터 남자는 生命을 내보내고 여자는 남자의 精을 받아 生命을 길러내는 곳이란 말이다. 子宮이란 子 즉 씨의 모인 곳이란 말로 생식기능에 있어 男子는 씨를 담아두었다가 내보내는 곳이며, 女子는 씨를 받아 길러내고 또 길러진 生命을 내보내는 곳으로 여자는 產門이라고도 하였다. 남자에 있어서는 精을 내보낼 때 精의 내보냄을 制御할 수 있는 關門과 같은 곳을 子宮이라 하였다. 景岳은 이러한 命門의 작용을 가지고 '先天·後天立命之門戶'라 하여 人間의 生을 이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하였다.

즉 命門은 男女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命門에서는 命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만들어진 命이 出入하는 곳이다. 먼저 여자에게서 보자면 生命의 씨앗인 卵子를 만들어 내는 곳은 命門이 아니라 난소이다. 난소에서 만들어진 卵子는 배란이 되어 씨의 창고인 자궁에 이르게 된다. 여자의 자궁에서는 남자의 生命의 씨를 받아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生命을 길러내며 다 길러진 후에는 다시 이곳을 통해 나오게 된다. 남자에게서 보자면, 生命의 씨인 精子는 정소에서 만들어져 새로운 生命 창조 의도가 있을 때 몸 밖으로 분출하게 된다. 이 때 남자에게는 여자의 자궁과 같은 씨의 창고가 있지는 않지만 精子의 배출을 통제하는 곳이 있어 이곳에서 精의 배출을 꼭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에 따라 精의 배출이 이루어지므로 남자에서의 子宮은 精의 배출을 통제하는 곳이며, 景岳시대에는 이에 대한 명칭이 없었으나 현대 의학적 개념으로 볼 때 이곳은 '정낭'과 '전립선'부근의 생식기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命門의 經에 대하여, 命門과 腎은 본래 같은 氣이며 命門은 원래 腎에 속하여 별도로 하나의 腑가 아니므로 命門이 腎과 별도로 다른 經에 배속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脈候部位의 배속을 설명하면서 人間은 天地自然의 法則을 따라 그에 맞게 순응하고 살아가는 조화로운 存在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陰陽, 左右, 水火의 개념을 연관시켜 左가 水이고 右가 火이므로 命門의 脈은 右尺에서 본다고 하였다.

命門의 작용과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難經》<39難>에서 “精神之所舍 原氣之所繫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라 한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며, 이에 대하여 景岳은 “爲水火之府 爲陰陽之宅 爲精神之海 爲生死之寶”라 하였다.

三焦와 包絡과 命門의 인체에서의 중요한 작용으로는 이들은 人體의 火候를 나타내주는 곳으로 인간에게서 生生不息하는 生命력을 발현시키는 곳이다.

三焦는 水穀의 전달통로인 胃·小腸·大腸·膀胱을 하나로 꿰어 水穀과 水液이 머물러 정체되어 있지 않고 위, 소장, 대장, 방광 속을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이들 臟器에 生命

력을 넣어주며, 全身에 있어서는 溫肌肉하고 充皮膚하여 인체의 溫氣를 나타내게 해주는 火候를 발현시키는 곳이다.

心包는 有形한 心臟과 血管을 통한 혈액의 순환에서 심, 혈액, 혈관의 유형한 것에 대하여 心臟을 박동시키고 그 박동에 따라 혈액을 분출시켜 혈관 속으로 혈액이 순환하도록 心의 움직임을 쉬지 않고 일으켜주는 곳으로 모든 生命體에서 生命力을 보이게 해주는 火候를 붙여 넣어주는 곳이다.

命門은 인체에 있어서 火候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곳으로 三焦와 心包의 火候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과 같은 곳이다. 인간의 몸은 한 순간에 숨만 빠져나가면 싸늘한 고체가 되듯이 有形한 몸동아리이지만, 命門은 항상 따뜻한 온기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원이 되고, 五臟六腑의 작용이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해주는 인체의 중심이며, 자동차의 엔진에서 불꽃(spark)을 일으켜주는 것과도 같이 조금도 쉬지 않고 인체에서의 火候를 발현시켜주는 근원이 되는 곳이다.

이와 같이 三焦·包絡·命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이들의 개념은 서양적 해부생리의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유관기능까지 보아서 단일한 系統的 사고를 가지고 파악해야한다.

人體에 있어서 命門이 가지는 중요성으로는, 人身의 가장 보배롭고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곳이며, 이 命門 기능의 成敗에 따라 人種의 種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人類學的인 열쇠가 이곳에 달려 있고, 삶과 죽음을 둘이 아닌 하나의 生死一如한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자 했던 옛 先人들의 철학이 바로 이 곳에 담겨있어, 人間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醫學속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命門에 관한 것이 가장 人本主義的 사상을 담고 있으므로 命門이 바로 人身의 樞紐가 되는 것이다.

景岳은 <求正錄>에서 <三焦包絡命門辨>을 둔 이후에는 <大寶論>과 <眞陰論>을 두어 命門의 작용에 의한 人體의 眞陽과 眞陰, 이를 다스리는 治方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十二藏脈候部位論>을 두어 五臟六腑와 三焦, 包絡, 命門의 脈候配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求正錄>을 흐르고 있는 일관된 주장은 바로 命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大寶論>과 <眞陰論>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人身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大寶라는 것은 眞陽이며 이 眞陽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眞陰이다. 이 眞陽과 眞陰이 매여 있는 곳은 바로 命門이므로 이 論은 결국 命門의 작용으로 귀납된다.

<大寶論>의 요지로는 “하늘의 大寶는 하늘의 太陽이며 사람의 大寶는 바로 이 眞陽이다”라고 하였으며, 眞陽이 중요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특한 陰陽太少之說을 만들어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眞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알아야하며 그 근본은 바로 命門이라하고, “命門者 先天之生我者 由此而受, 後天之我生者 由此而裁也”라고 하여 이곳이 先天後天을 이어주는 고리가 되는 생명의 요체임을 말하였다.

<眞陰論>의 요지로는 老子와 邵康節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는데 “老子曰 知其雄

守其雌. 邵子曰 三月春光留不住 春歸春意難分付”라 하여 眞陽에 대한 짝으로, 眞陽을 眞陽답게 하는 것이 眞陰임을 밝히, 陽을 알면 陰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 陰陽을 조절하며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하여 眞陰의 핵심을 다분히 함축적으로 나타내었다.

두 論의 요체를 ‘眞陰’과 ‘眞陽’이라 하여 陰과 陽을 따로 이야기한 듯하지만 先天의 氣에서 形이 生하며 陽이 陰을 生하고 後天의 形에서 氣가 化하여 陰이 陽을 生한다고 하여 陰과 陽은 떨어져 둘이 아니라 一體임을 이야기하였다. 陰은 陽을 통하지 않으면 生할 수 없고 陽은 반드시 陰으로부터 나오게 되니 陰과 陽은 하나의 태극과도 같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한 생각에 陽도 되고 한 생각에 陰도 되며 이를 자유로이 변환해주는 관건은 바로 ‘命門’이라고 하였다.

景岳學說의 이전에는 河澗과 丹溪의 主火論이 성행하여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설에 의하여 陽이 항진된 것을 치고자하는 知母·黃栢으로 인한 폐단이 많이 생겼으며, 景岳이 이를 보고 “陽非有餘 陰常不足”이라하여 眞陰과 眞陽이 모두 중요함을 인식하고 기존의 金匱八味, 錢氏六味の 方으로는 자신의 설에 합당치 아니하므로 직접 左歸丸, 右歸丸, 左歸飲, 右歸飲의 處方을 만들어 眞陰·眞陽을 보전함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景岳은 <眞陰論>의 말미에 左右歸飲丸의 처방을 직접 실어서 眞陰을 主하는 左歸丸에 陽으로 변환시켜주는 肉桂·附子를 가하면 右歸丸이 된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六味와 八味와의 관계와도 같은 이치로 다만 茯苓·澤瀉는 滲利시키는 약이므로 이를 빼고 다른 약을 더함으로써 眞陰·眞陽을 보다 충실하게 補養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景岳의 뜻은 命門에서 眞陰·眞陽이 자유로이 변환함을 알고 人身의 가장 보배로운 것을 아끼고 보전하려 한 것이나, 丹溪의 처방이 苦寒한 약물의 과용으로 인하여 후세에 많은 폐해를 가져옴과 같이 景岳의 方 또한 후세 醫家들이 景岳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濫補한 약물을 과용하여 세간에 많은 폐해를 끼치게 되어 후대 醫家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十二藏府脈候部位論>에서 기존의 脈候부위로는 三焦·包絡·命門에 대한 구체적 실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理論展開와 부합되도록 이들에 대한 脈候의 部位를 설명하였다. 또한, 人身의 氣는 하나의 고리와도 같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순환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脈의 이치로는 經絡의 순환과 일치하지 않아 大·小腸의 部位를 재배치하여 人體의 氣의 흐름이 12經 流注 循環의 묘리와 상합하도록 하였다.

景岳의 脈候部位는 有名而無形한 三焦와 包絡의 脈候를 배속시켰고, 大腸과 小腸의 脈候 위치를 寸部에서 尺部로 내려 人身의 臟腑구조와 일치시켰으며, 小腸은 右尺에 배속하여 左寸의 心火가 이를 따라 連絡되며, 大腸은 左尺에 배속하여 右寸의 肺金이 상하로 連絡되도록하여 左右上下로 시작과 끝이 끊어짐이 없이 12經 流注의 循環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說은 景岳의 독특한 理論이지만, 人身의 生命 또한 上下陰陽의 법칙에 부응하

여 살아가며 天地自然의 運行이 쉽이 없는 것처럼 人身의 運行 또한 쉽이 없이 움직인다고 보는 東洋思想의 특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命門이 가지는 중요한 철학적인 의미는 “生之門卽死之戶”라 하여 삶과 죽음을 둘이 아닌 하나로 살피고자하는 人本主義的인 生命思想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門戶를 命門으로 보아 人身이 天命의 性命을 받아 살아가는데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기르고 保全함으로써 인간의 삶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함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어떤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배출하는 정자의 수는 할아버지 대에서 배출 하던 정자 수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공해, 화학 물질의 남용,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원인에 의하여 정자의 수는 최근 들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남자가 한번 사정할 때 방출하는 정자수는 약 2억 마리이며, 한 번에 사정하는 양은 평균 3.5cc인데 과거에는 정액 1cc속에 5천만~6천만마리의 정자가 들어 있었으나 요즘은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해 2천만마리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언젠가는 남성불임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자연스레 여기던 인간의 生殖能力이 현대사회의 환경적, 정신적 요인에 의해 손상되고 불임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命門은 오늘날의 의학에서 인간의 性的 능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性이 너무나 자본주의적 행태와 맞물려 소비적인 의미로써 性을 바라보고 있다. 인간의 性을 상업적인 가치와 소비적인 대상으로 보고 인체의 眞陰과 眞陽을 소모시키는 사회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나 性을 자꾸 소모하려고만 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학에서는 命門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의 의미로써의 건전하고 올바른 性에 대한 개념을 생산해 낼 수 있다. 命門의 역할은 人身의 精을 소모시키지 말고 아끼고 보전하여 미래에는 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陰平陽秘 精神乃治”하는 것과 같이 眞陰을 배양하고 眞陽을 키워서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후손을 위해서 景岳은 命門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현실은 바로 命門을 왜 다시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景岳의 의학적 연구 성과를 새롭게 평가하고 해석하여 오늘날의 한의학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정립하고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景岳의 학설은 明代醫學과 清代醫學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였으며, 臟腑病機學派 혹은 溫補學派라고 불리는 學說의 이론적 틀을 완비하였다. 景岳의 醫學思想은 清代醫學에 많은 영향을 끼치었으나, 그들 중에는 景岳을 비판하는 부류도 많이 나타났다. 특히 考證學이라는 학문적 사조 및 醫學에서의 溫病學의 유행 등의 영향으로 景岳의 溫補學說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景岳이 힘써 주장한 溫補之說은 矯枉過正하여 後世에 補

藥을 濫用하는 流弊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일부 醫家들은 景岳을 옹호하기도 하여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景岳을 비판한 醫家로는 章虛谷과 陳修園 등이 대표적이며, 景岳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新方八陣>의 처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으로는 張璐, 程杏軒, 李冠仙 등이 유명하다.¹⁴⁰⁾

景岳은 또한 朝鮮 後期の 醫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朝鮮의 여러 醫書에 <景岳全書>가 광범위하게 인용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서적들로는 周命新의 <醫門寶鑑>을 필두로, 丁若鏞의 <麻科會通>, 黃度淵의 <醫宗損益>, 黃泌秀의 <方藥合編>과 李圭峻의 <醫鑑重磨> 등을 들 수 있다.

<醫門寶鑑>에는 朝鮮後期 醫書들 가운데 景岳의 新方을 처음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麻科會通>에는 <麻疹詮>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醫宗損益>에는 景岳의 新方 189개 가운데 110여개를 인용하고 있으며, 그 외 <雜證謀>, <麻疹詮>, <婦人規>, <小兒則> 등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다. <方藥合編>에는 右歸飲, 大營煎, 濟川煎 등 모두 30개의 <新方八陣> 處方이 수록되어 있다.¹⁴¹⁾ 이와 같이 景岳의 의학이론과 임상처방은 오늘날의 한국 한의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結 論

張介賓이 <求正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것들에 대하여 그 바름(正)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求正錄>에서 三焦·包絡·命門의 변별, 命門에 의한 眞陽·眞陰의 작용, 이를 다스리는 治方, 그리고 이를 살피는 脈候에 이르기까지 一貫된 系統을 가지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완전한 理論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景岳은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三焦·包絡·命門의 位置와 作用, 脈候에 대하여 자세하게 辨別하여 이름이 지어진 것은 반드시 그 形狀이 있다고 하였다.

三焦에 대하여는, 腹腔周圍의 上下全體에 큰 주머니와 같으며 몸의 안쪽에 한 겹으로 붙어있고 형태와 색깔이 아주 붉어서 마치 六舍를 상징하며 여러 陽을 모두 호위하는 것으로, 몸의 피부와 장부기관 사이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두르고 있는 體腔 전체라고 하였다. 包絡에 대하여는, 心의 邪氣를 대신 받는 有形한 곳으로 心을 싸고 있는 膜이라 하였다. 命門에 대하여는, 命門은 곧 子宮이고 丹田, 血室, 氣海는 모두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子宮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며, 女子에 있어서는 產門이라고도 하고 男子에 있어서는 關關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하였다.

景岳은 사람에게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眞陽이며 이 眞陽을 眞陽답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은 眞陰으로, 人身의 眞陽과 眞陰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에 陽도

140) 최달영 외2: 新方八陣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서울, 2004

141) 최달영 외2: 新方八陣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서울, 2004

되고 한 생각에 陰도 되는데 이를 자유로이 변환해 주는 關鍵은 바로 命門이라 하였다.

景岳은 命門을 설명하면서 左水右火라 하여 命門의 脈候를 右尺에 配屬하였으며, 左尺에서는 腎中の 眞陰을 주관하고 右尺에서는 腎中の 眞陽을 주관한다고 하였고, 독특한 陰陽太少之說과 脈候部位論을 제시하였다. 이에 나타난 景岳의 醫學思想은 人間은 天地自然의 法則을 따라 그에 순응하여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지극히 自然哲學的 立場에서 天文과 地形에 대한 觀點을 가지고 醫論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景岳은 <眞陰論>에서 老子와 邵康節의 말을 인용하여 人身이 天命의 生을 받아 살아가는데 가장 보배로운 것은 眞陽·眞陰이며 이를 아끼고 保存함으로써 人間의 青春을 길게 할 수 있으며, 이 青春을 길게 할 수 있는 것은 命門에서 精의 작용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하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여 補陰의 理를 함축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攝生을 중요시한 景岳의 養生思想을 볼 수 있다.

景岳은 命門을 ‘先天·後天立命之門戶’라하여 人身은 命門을 통하여 天命의 生을 받아 살아가며, 이곳의 作用에 따라 現生の 自身 또한 살고 있으며, 後代의 生成 또한 이곳으로부터 이루어지는 門戶가 되는 곳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生之門卽死之戶’라 하여 命門의 衰旺에 따라 人間의 生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門戶가 됨을 말하였다. 이를 통하여 生과 死의 發顯을 ‘生死一如’, ‘如環無斷’, ‘終而復始’하는 首尾相關된 구조로 파악하는 景岳의 生死觀을 볼 수 있다.

景岳은 人身의 眞陰과 眞陽을 기르고 보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左歸丸, 右歸丸, 左歸飲, 右歸飲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眞陰과 眞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景岳의 命門에 대한 學說은 現代인들의 養生과 攝生의 要諦이자 生産的 生命活動의 基礎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張介賓: 類經圖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2.
2. 張介賓: 類經圖翼,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5.
3.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4. 張介賓: 景岳全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8.
5. 張介賓: 質疑錄, 張景岳醫學全書, 明清名醫全書大成,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서울, 1985.
8.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4.
9. 裘沛然, 丁光迪: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2.
10. 裘沛然: 中醫歷代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傷寒, 1984.
11. 任應秋: 中醫各家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68.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13.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4.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 1983.
15. 劉渡舟 外 2人: 金匱要略詮解,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4.
16.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17.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 難經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0.
18. 華 佗: 中藏經, 江蘇科學技術出版社, 江蘇省, 1985.
19. 滑 壽: 十四經發揮, 鍼灸醫學典籍大系, 大板, 昭和53年.
20. 虞 搏: 醫學正傳,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1.
21. 李 杲: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83.
22. 李 梴: 醫學入門, 南山堂, 서울, 1985.
23. 錢 乙: 小兒藥證直訣, 醫聖堂, 서울, 1994.
24. 吳 謙 等: 醫宗金鑑,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25. 楊繼洲: 針灸大成,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3.
26. 李時珍: 本草綱目, 서울, 고문사, 1985.
27. 龔廷賢: 萬病回春, 世一書局印行.
28.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9.
29. 陳大舜 外2: 各家學說(中國篇), 대성의학사, 서울, 2001
30. 凌耀星: 難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31. 殷玉裁: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서울, 1990.
32. 홍원식, 윤창열: (증보)中國醫學史, 일중사, 서울, 2001
33. 老子: 老子, 三省出版社, 서울, 1982.
34. 최달영 외2: 新方八陣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서울, 2004.
35.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基礎理論篇, 東洋醫學研究員, 서울, 1989.
36.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篇, 東洋醫學研究員, 서울, 1989.
37. 金賢濟, 洪元植: 漢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3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東醫學事典, 까치, 서울, 1990.
39. 金俊錡: 質疑錄에 나타난 張景岳의 醫學思想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제13권 1호, 1999
40. 金重漢: 張介賓의 醫學思想과 理論批判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서울, 1986.
41.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中醫大辭典 方劑分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